



NOVEMBER 2019

Vol.292

11

성남시 시정소식지 <비전성남> 통권 제292호 2019년 10월 25일 발행



청년예술가, 날개를 달다! 9월 30일 문을 연 중앙지하사가 청년예술창작소, 청년예술가 로컬스프리와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관련기사 07면>



아이폰 '앱스토어',
안드로이드폰 'Play 스토어'에서
'비전성남' 앱을 무료로 다운받으면
모바일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성남시 공식 SNS

- 트위터 twitter.com/seongnamcity
- 페이스북 www.facebook.com/seongnamdiary
- 블로그 www.seongnamdiary.com
- 홈페이지 <http://snvision.seongnam.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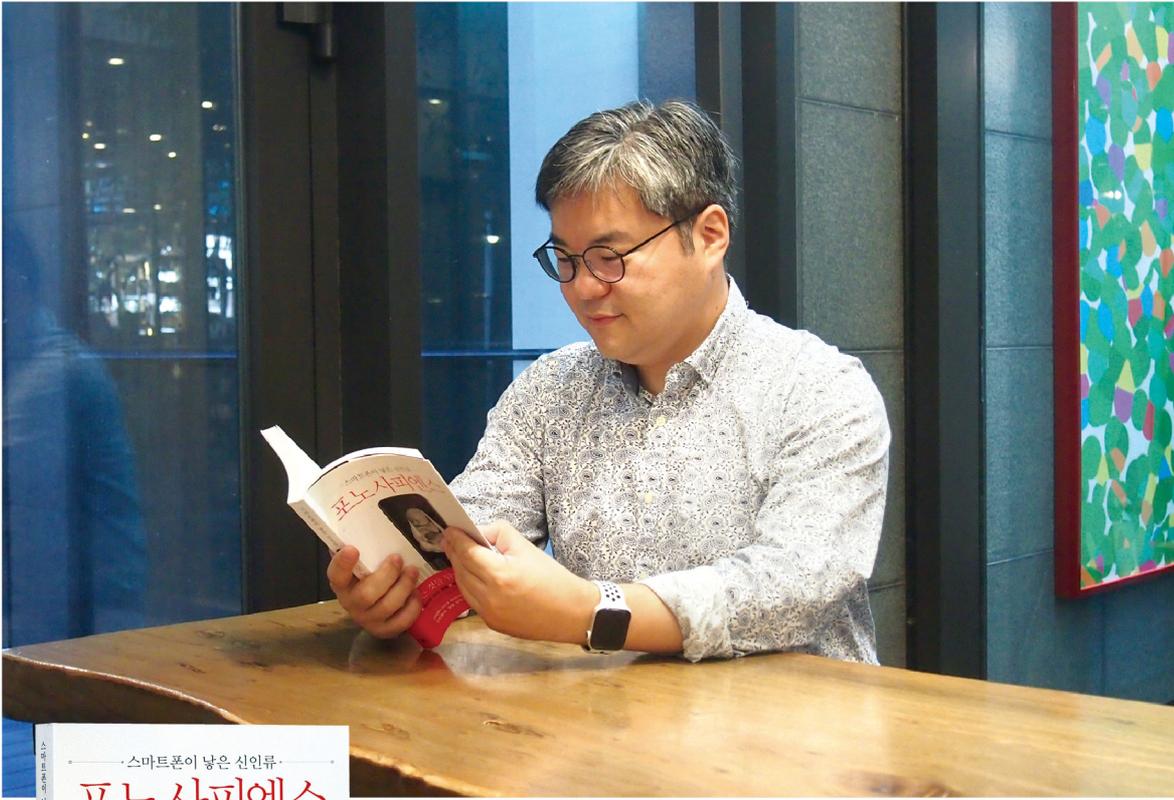
발행 성남시
편집 공보관
주소 13437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청)
클센터 성남시청센터 1577·3100

11 성남시민 독서 릴레이

11 김윤환 스토리텔링 포토그래퍼

미래를 만들어 갈 신인류 '포노 사피엔스'

“생각의 전환으로 신문명을 활용하는 리더가 되자!”



『포노 사피엔스』 최재봉 지음, 쌤앤파커스 펴냄

저와 아내는 대학시절부터 서점에서 만나 서점에서 헤어질 정도로 책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상업적인 대형서점에서는 읽고 싶은 책을 발견하기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어느 날 호기심에 들어간 동네 책방에서 주인이 직접 요약한 서평을 읽고 책을 샀습니다. 신기하게도 주인이 추천한 책마다 흥미를 느꼈습니다. 대형서점에서 찾기 어려운 보석 같은 책도 종종 만나면서 책방이 다시 우리 가족의 놀이터가 됐습니다.

『포노 사피엔스』도 동네 책방에서 만났습니다. 스마트폰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보여주는 내용이라 흥미가 당겼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애플 제품 덕분에 제 인생이 크게 변화됐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블랙베리를 일찍 사용했습니다. 키보드가 있고 인터넷이 가능해 이동하면서도 업무가 자유로웠습니다. 그래서 아이폰이 처음 출시됐을 때도 블랙베리를 대체하는 조금 더 예쁜 기계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이폰이 세상에 나오고 일 년 후, 저는 아이폰 중독자가 됐습니다.

최재봉 저자도 2007년 세상에 나온 아이폰을 기점으로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고 합니다. IT업계 종사자라면 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광고에서 한 어른이 Tablet(태블릿) PC(iPad)를 하는 청소년에게 “컴퓨터 하고 있니”라고 묻자 청소년은 의아해하며 “컴퓨터가 무엇인데요?”라고 되물습니다. 신세대라 불리던 X세대조차도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어린이들은 자연스레 태블릿으로 온라인 세상을 접합니다. 궁금한 것은 인터넷 검색으로, TV 보다는 유튜브(YouTube)로, 친구들과는 어플로 대화합니다. 어른들은 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어린이들이 새로운 문명에 익숙한 것을 ‘학업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반대합니다.

반면 미국에서는 초등학교부터 모바일 기기를 수업에 적극 활용합니다. 어릴 때부터 자연스레 새로운 문명을 100%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몇 년 전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을 막겠다고 정부가 규제를 시작했습니다. 국내를 넘어 세계무대에서 약진하던 한국 게임 산업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게임 문화를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교육했다면 어땠을까요? 비유하자면 술 중독의 원인을 자제하지 못하는 습관이 아니라 술 때문이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대부분 학부모들은 유튜브는 해로운 콘텐츠가 있으니 자제하라고 합니다. 원천 봉쇄를 하고 싶은 것이지요. 건전한 콘텐츠를 찾고, 직접 유용한 콘텐츠를 제작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 보도록 도와준다면 어떨까요? 새로운 세상의 룰을 배우는 데 이보다 좋은 방법은 없을 겁니다. 최재봉 저자의 “유튜브를 하고 SNS도 더 해라”라는 말에 100% 공감합니다.

저는 직업상 다양한 업체를 만납니다. 스마트폰 이후 사업환경이 놀라울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SNS에서 사진 한 장을 보고 잠재 고객이 업체를 선택하는 시대입니다. BTS의 성공을 봐도 SNS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BTS는 SNS 덕분에 ‘아미’라는 팬들이 형성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상이 정말 변했습니다. 우리만 눈을 가리고 각종 규제를 통해 문명의 이로움을 습득하지 못한다면 십여 년 뒤 한국은 어떻게 될까요? 청소년들이 직장인, 사업가가 될 때는 직접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어 유튜브에서 가입자를 확보한 사람이, SNS 팔로워가 많은 사람이 성공하는 세상이 올지 모릅니다. 모쪼록 『포노 사피엔스』에서 말하는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이 돼 세상이 변화길 기원해 봅니다.

아내의 친구로 늘 책을 아끼고 사랑하는 현순 씨에게 『포노 사피엔스』와 함께 성남시민 독서릴레이 바통을 넘깁니다. 비전성남 독자님들도 책과 함께 깊어지는 가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기고: 스토리텔링 포토그래퍼 김윤환

■ 성남시민 독서 릴레이는

시민과 시민이 책으로 만나고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 1 은수미 성남시장 『건지 감자껍질파이 북클럽』
2 노희지 보육교사 『언어의 온도』
3 일하는학교 『배를 엮다』
4 이성실 사회복지사 『당신이 옳다』
5 그림책NORI 이지은 대표 『나의 엄마, 어린이』
6 공동육아 어린이집 '세발까마귀' 안성일 선생님 『풀들의 전략』
7 구지현 만화가 『날마다 도서관을 상상해』
8 이무영 영화감독 『더 로드(The Road)』
9 김의경 소설가 『감정노동』
10 '비복스' 김성대 대표 『단순한 진실』
11 김윤환 포토그래퍼 『포노 사피엔스』
12 주부 김현순(구미동)』

독자 리뷰 모집

성남시민 독서릴레이에서 소개하는 책을 읽은 후 리뷰(원고지 6매 이내)를 <비전성남 편집실>(이메일 sn997@korea.kr)로 보내 주세요. 선정되면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문의 031-729-2076~8

성남시, 삼평동 641번지에 우수기업 유치 '자족 기능↑'

지식기반·전략·벤처기업 대상 매각 공고 내... 12월 16일까지 입찰 신청받아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쓰이는 삼평동 641번지 사유지

성남시는 분당구 삼평동 641번지에 있는 2만5,719㎡ 규모 사유지에 우수기업을 유치해 지역 경제에 관한 자족 기능을 높이기로 했다고 10월 8일 밝혔다.

시는 최근 첨단산업 육성위원회를 열어 해당 부지에 대한 매각기준과 우수기업 유치 공모 지침을 확정하고, 10월 8일 시 홈페이지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모집 공고를 냈다.

매각 대상 부지는 2009년 판교지역 조성 당시 공공청사 건립 예정부지였다. 제 기능을 하지 못해 2015년 성남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일반업무 시설로 용도 변경한 이후 현재까지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시는 해당 부지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성남시의회가 지난 7월 의결함에 따라 매각을 통한 기업 유치를 추진하게 됐다.

해당 사유지의 감정평가액은 8,094억 원(㎡당 3,147만 원)이다. 시는 부지 매입 자격을 제조업의 연구시설, 벤처기업 집적시설, 문화산업진흥시설로 제한했다.

이는 지식기반산업과 전략산업, 벤처기업을 유치해 고용유발 효과와 경제적 파급 효과를 시민에게 돌려주려는 취지다. 인근 지역 주민들을 위해 유치한 기업에 시민개방 커뮤니티센터와 개방형 주차장도 설치·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시는 12월 16일까지 입찰 신청을 받아 기업 현황, 사업계획 등을 종합 평가해 우선협상대상자를 같은 달 말일까지 선정한 뒤 협상 과정을 거쳐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이와 함께 사유지 매각으로 마련된 재원은 판교지역 3개 학교 부지 매입, 트램, 판교 e-스포츠 전용 경기장 조성, 공영주차장 건립 등 공공인프라 확충에 재투입해 도시균형발전에 나서기로 했다.

아시아실리컨밸리담당관 ICT융합팀 031-729-8993

3개 생활SOC 복합화 사업, 국비 82억 원 확보

위례 종합사회복지관, 은행 숲속커뮤니티센터, 구미 어린이종합지원센터 건립



다함께돌봄센터(위례)

성남시가 추진 중인 위례지구 종합사회복지관, 은행동 숲속 커뮤니티센터, 구미동 어린이종합지원센터 건립이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돼 국비 82억 원을 확보했다. 총사업비 464억 원 중 일부가 확보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시는 최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공모한 '2020년 생활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간접자본) 복합화 사업'에 신청한 3개 사업이 모두 선정됐다.

생활SOC 복합화는 도서관, 어린이집, 주거지 주차장, 생활문화센터, 체육시설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시설들을 한곳 부지에 복합 설치하는

사업이다. 부지매입비, 건축비 등의 예산 절감, 사업 기간 단축, 시민 이용 편의 증진 등의 장점이 있다.

성남시는 해당 사업 추진에 관한 투자심사 등의 절차를 연말까지 마친 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3곳 복합시설 건립에 나선다.

'위례 어울림 종합사회복지관'은 250억 원(국비 44억 원·시비 206억 원)을 투입해 수정구 창곡동 517번지 일원에 2024년까지 건립한다. 부지면적 3,032㎡, 지하 2층~지상 5층, 건물 연면적 8,500㎡ 규모다. 국민체육센터와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관이 동시에 들어선다.

중원구 은행동 '숲속 커뮤니티센터'는 115억 원(국비 27억 원·시비 88억 원)을 투입해 남한산성 유원지 내에 2022년까지 건립한다. 부지면적 5,375㎡, 지하 2층~지상 3층, 건물 연면적 6,400㎡ 규모다. 작은도서관과 생활문화센터, 주거지 주차장, 공예전시관 시설을 복합 설치한다.

분당구 구미동 '어린이 종합지원센터'는 99억 원(국비 11억 원·시비 88억 원)을 투입해 28번지에 부지면적 868㎡, 지하 2층~지상 3층, 건물 연면적 3,300㎡ 규모로 2022년까지 건립한다. 국공립어린이집과 다함께돌봄센터, 아이사랑놀이터가 동시에 설치된다.

정책기획과 전략추진팀 031-729-2164

10·11월 예정 축제 축소·취소에 대하여

성남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에 동참하기 위해 10월과 11월 개최 예정이던 행사를 축소 및 취소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시에는 돼지 축산농가나 태풍 피해가 없지만 대한민국 전체가 온 힘을 모아 방역에 애쓰고 태풍 '미탁' 피해를 복구하는데, 우리시만 축제를 여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였습니다.

아쉽지만 야심차게 준비한 '성남축제의 날 Tomorrow Land'는 야외복합전시만 남긴 채 대폭 축소하고 시 승격 46주년 시민체육대회도 취소하는 등 많은 행사를 축소 및 취소했습니다. 태풍 '미탁'으로 막대한 피해를 본 자매도시 삼척의 복구 지원을 위해 10월 5일 600만 원 상당의 구호 물품도 전달하며 빠른 복구를 기원했습니다.

시민 여러분에게 불편을 끼쳐 죄송합니다.

시민 안전을 위하고 국가의 어려움에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니,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0월 성남시장

4차 산업혁명의 허브, 성남 '탄력'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신설...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육성 지원



판교테크노밸리

성남시가 10월 1일 시장 직속의 아시아실리콘밸리 담당관을 신설, 첨단기술 산업단지 '아시아실리콘밸리' 조성을 가속화한다. 시장 직속 보좌기관 설치 는 성남시 개청(1973년) 이래 처음이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은 미래산업팀, ICT융합

팀, 게임컨텐츠팀, 헬스바이오팀으로 구성돼 각 분야 지원·육성 업무를 맡는다. 수정 위례지구 스마트 시티~판교1·2·3테크노밸리~백현 마이스 산업단지~분당벤처밸리~성남하이테크밸리로 이어지는 첨단 기술 산업단지 '아시아실리콘밸리' 조성을 전담한다.

성남시는 아시아실리콘밸리 조성을 위해 최근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과 손잡고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인공지능(AI) 산업 활성화에 나선다. 10월 4일 'AI 인재양성 및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약에 따라 11월 중 분당구 정자동 킨스타워 건물 18층에 800㎡ 규모 AI대학원 성남연구센터를 설치해 산학 협력 활동을 시작한다.

시는 카이스트 석·박사 기업 파견, 인공지능 포럼 정기 개최 등 산학 협력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AI 분야 성남 기업 지원을 확대한다. 카이스트 연구진들도 실무 중심의 AI 핵심기술력을 고도화해 성남 첨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다.

카이스트는 상주 인력을 점차 150명 수준으로 늘

려 판교제2테크노밸리 내에 2021년 말 완공되는 시 소유 성남글로벌ICT융합플래닛으로 확장 이전할 계획이다.

앞선 9월 27일에는 글로벌 엑셀러레이터인 벌트 코리아와 손잡고 스타트업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성남 창업생태계 활성화와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 벌트코리아는 성남지사를 설립해 성남지역의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유망 스타트업을 집중 발굴 육성하고 미국 등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 사업을 편다.

이 밖에도 시는 10월 21일 성남 고등지구에 HP 연구개발센터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 가천대와 바이오헬스 메이커 스페이스(개발자 공간) 구축 '협약'을 체결했다.

성남시는 4차 산업혁명의 허브로서 국내외 정상급 연구 인력들이 성남에 모여 아시아실리콘밸리 조성에 힘을 더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미래산업팀 031-729-8534

특별기고

KAIST AI대학원 성남연구센터 출범

세계 최고 수준 AI 기술로 성남시의 아시아실리콘밸리 조성 돕는다



정승 석좌교수 |
KAIST AI대학원장

인터넷의 출현 이후 지난 50년간 ICT 기술이 우리 삶의 방식과 업무 방식을 얼마나 변화시켰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클라우드 기반의 디지털 기술은 우리를 더 스마트하게 만들어 줬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생산성을 높이고, 다른 사람과 더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합니다. **머지않아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일은 모두 인공지능(AI)이 자동적으로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훨씬 더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할 수 있게 됩니다. 좀 더 넓게 보면, AI는 인간이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해 주고, 제조와 의료, 교육, 운송, 도시 같은 분야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하게 할 것입니다.

AI로 강화된 기계 지능은 이미 의사가 의료 사고를 줄이고, 경찰이 범죄를 예측하고, 공장이 생산량을 늘리고, 교사가 맞춤형 지도를 할 수 있게 하고, 더 나아가 지구를 보호하고 사회적 가치를 함양하는 다양하고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는 데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디지털의 발전은 우리 일상에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동시에 수많은 복잡한 문제를 야기하며,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대한 우려를 낳기도 합니다.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스마트폰이 집중력을 방해하는가에 대한 저녁 식탁에서의 소소한 토

론부터 사이버 보안, 프라이버시, 소셜 미디어의 역기능 등에 관한 대중의 숙고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그로 인해 새로운 공공 정책과 규제는 물론 새로운 법률 분야와 컴퓨터 과학 분야에서의 윤리적 고찰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AI가 점점 더 진화하고 AI가 사회에서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이러한 현상은 분명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미래를 내다볼 때는 새로운 기술이 가져올 기회를 적극 활용하고 기술이 야기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동시에 개방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KAIST AI대학원은 2019년 국내 최초로 AI 분야의 석사 및 박사 학위과정을 개설했습니다. 본 대학원은 전산과학과 전자공학뿐 아니라 산업공학, 수학, 통계학, 경제학, 경영학, 금융공학, 생물학, 화학, 뇌과학, 예술, 사회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공과 배경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고 구성원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KAIST AI대학원의 전임교수진은 기계학습, 인공지능, 데이터마이닝, 컴퓨터비전 및 자연어처리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IBM TJ 왓슨 연구소(IBM T J Watson), 디즈니 연구소(Disney Research), 마이크로소프트 연구소(Microsoft Research),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Lawrence Berkeley National Laboratory), 링크드인(LinkedIn), AT&T 벨 연구소(AT&T Bell Labs), 삼성종합

기술원 등 세계 유수의 연구 기관 및 기업의 연구원 출신입니다.

2018년 KAIST는 기계학습 분야 최고 학회인 ICML과 NeurIPS에 발표한 총 논문 수에서 세계 11위, 아시아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카네기멜론대학교, UC버클리대학교, 스탠포드대학교, MIT, 스위스 로잔연방공과대학(EPFL), UCLA, 코넬대학교, 토론토대학교, 칭화대학교, 스위스 취리히연방공과대학(ETH) 다음 순위입니다.

KAIST AI대학원은 세계 최고 수준의 AI 기술과 연구 인력을 투입해 성남시의 아시아실리콘밸리 조성 사업에도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성남시와 KAIST는 10월 4일 'AI 인재양성 및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약'을 맺고 11월 중 성남시 소유의 분당구 정자동 킨스타워 건물 18층에 800㎡ 규모의 AI대학원 성남연구센터를 설치해 성남·판교 기업들과 본격적으로 산학협력 활동을 시작합니다.

성남연구센터에는 AI대학원 전임교수 3명과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과 연구원 50여 명이 상주하며 **성남시는 성남 연구센터 공간을 무상지원하고 AI대학원 석·박사들의 기업 파견, AI 기술이전 설명회 개최 등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성남시는 KAIST AI대학원 성남연구센터의 연구 인력을 150명 수준으로 늘려 판교제2테크노밸리에 2021년 말 완공되는 성남시 소유 성남글로벌ICT융합플래닛에 1,650㎡ 규모의 공간으로 확장 이전토록 할 계획입니다.



최원호 성남시의료원 행정부원장

여기는 성남시의료원입니다 ②

성남시의료원 개원 준비현황과 미래 가치를 듣다

성남시의료원이 내년 3월 개원을 앞두고 있다. 12월에는 우선 9개 진료과(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응급의학과, 가정의학과, 비뇨의학과)가 진료를 시작한다.

최원호 행정부원장, “부분 진료에서 환자 안전 확인되면 내년 3월 정상 개원”

올 2월 준공을 마친 성남시의료원은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많은 준비가 이뤄졌고 현재 시설, 장비 등에 대한 막바지 점검에 들어갔다. 특히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미 채용돼 활동하는 개원준비 인력에 더해 진료에 필요한 의사직, 간호직, 보건직, 사무기술직, 기능직 등 전문 의료 인력에 대한 대규모 채용이 진행 중이며, 지금까지 구축된 진료프로세스, 검사프로세스 등 병원의 시스템이 원활히 돌아가는지를 확인하는 등 여러 단계의 정밀 테스트가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절차들이 모두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12월에는 내과,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등 9개 진료과가 진료를 시작할 것이다.

최원호 행정부원장은 “환자 진료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절차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체계이므로 환자 안전을 위해 세세하게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진료 개시 이후 환자의 안전이 확인되면, 내년 총 24개 진료과로 정상 개원해 시민의 간절한 기대에 부응하는 의료원이 될 것이다. 의료원은 응급의료에 중점을 두고 의료안전망 구축에 공헌하려 한다.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참여하는 가치체계를 의료의 질 차별화와 경영합리화, 고객만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의료원이 나아갈 길을 제시했다.

최원호 행정부원장은 병원행정부문 보건학 석사, 보건정책 및 병원관리부문 보건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민간병원에서 24년, 공공병원에서 7년 재직했다. 개원준비를 비롯해 기획예산·인사·노무·회계·물류 등 병원 전반에 관한 풍부한 실전경험으로 성남시의료원의 행정업무를 진두지휘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을 갖춘 책임자다.

대학병원과 견주어도 손색없는 첨단 장비와 환자 편의 위한 시스템

성남시의료원은 가장 최신의 의료장비를 새롭게 도입해 성남시민에게 우수한 품질의 진단과 검사를 약속한다. 의료원은 대학병원과 견주어도 전혀 손색이 없는 높은 수준의 장비들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대사증후군과 심·뇌혈관 질환 등 한국인의 다빈도 질환에 대한 예방과 치료를 위한 첨단 장비를 보유 중이다. 최신의 3.0T MRI, 384채널 CT 등 최신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 대학병원 수준의 신뢰받을 수 있는 진단과 검사가 가능하다.

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을 방문시 마주하게 되는 긴 대기시간, 응급실의 과밀화, 좁은 병상간격 등은 환자 입장에서 많은 불편을 초래한다. 이에 성남시의료원은 첨단 장비 뿐 아니라 자동화전처리시스템으로 모든 설계를 환자 편의 중심으로

한다. 빠른 검사로 대기시간을 줄였으며 당일 검사 결과 확인을 통해 환자 입장에서의 획기적인 시스템을 선보인다. 이러한 시스템은 시립병원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도입된다. 환자감시장치인 Mobile solution도 시행해 환자가 원내 어디에 있는지 환자 상태를 확인해 즉시 의사가 대응할 수 있게 했다.

응급실에는 음압격리실 2병실이 있어 격리실 내에 있는 바이러스나 세균이 공기를 타고 밖으로 나갈 수 없게 해 메르스사태와 같은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게 했다. 9층은 격리병동으로 전실이 있는 음압 격리병상을 6병실 확보했다. 결핵·수두·홍역·파종성 대상포진 등 공기매개 질환자가 주 입원대상이며 특히 신종감염병 유행 시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다.

대규모 채용현황, 최고의 의료진과 우수 인재 확보에 총력

성남시의료원은 기존 100여 명의 개원필수인력 외 올해 연말 진료 개시와 2020년 3월 정상개원을 위한 대규모 신규인력 채용을 진행 중이다. 우선적으로 내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비뇨의학과, 영상의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등 1차 38명의 전문의는 9월 말 임용했고 추가로 40여 명의 전문의를 채용 중이다.

최 행정부원장은 “성남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고의 인적 자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 9월 30일 성남시의료원이 공고한 채용인력은 직종별로 간호직 328명, 임상병리사·방사선사 등 보건직 92명, 사무기술직 21명, 기능직 70명, 총 511명이다. 또한 의료서비스의 품질과 내부직원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문분야별 직무교육과 더불어 직원의 CS(Customer Satisfaction)교육 등을 강화, 시민이 기대하는 선도적인 공공의료 모델 병원으로 발돋움하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진료 개시에 들어가는 성남시의료원이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누구나 편하게 누리는 공공의료 모델병원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응원한다.

취재 구현주 기자 sunlin1225@naver.com



MRI(3.0T) : 높은 해상도/환자 친화적 검사

CT(384CH) : 신속한 촬영/고화질

Angiography(Bi-plane) : 낮은 피폭량, 환자 안전성

“우리 아이 마음 놓고 맡겨요”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

초등 숙제·독서지도·체험학습·또래놀이... 국내 최초 어린이식당도 운영

“그림도 그리고, 만들기 놀이도 하고, 친구들이랑 노는 게 제일 좋아요” 김아라(중부초교1) 양은 학교를 마치면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1호점 은행1동 소재)’로 온다. 아라처럼 학교 수업을 마친 아이들은 마치 집에 오듯 센터의 문을 열고 들어선다.

지난 5월 문을 연 다함께돌봄센터는 급한 일이 있거나 맞벌이로 아이들을 돌볼 시간이 없는 학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현재 인근 초등학교 학생 22명(정원 40명)이 상시돌봄(주3~5일), 선택돌봄(일시·긴급돌봄) 형식으로 자유롭게 이용 중이다.

센터는 합창·미술치료·요가·숲놀이·보드게임·키즈 쿨링·공연관람·심리운동놀이 등 아이들의 정서발달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요일별로 진행한다. 바쁜 일상으로 엄마 아빠가 해줄 수 없는 체험학습, 또

생태미술



아이의 정서발달에 도움이 되는 심리운동 놀이



전국 처음으로 센터 내에 설치된 어린이식당

래놀이를 아이들은 센터를 통해 경험하며 자란다. 학부모들은 이점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는다.

박선정(40) 씨는 “현재 취업 준비 중이라서 딸아이를 돌볼 시간이 부족해 아이를 맡기고 있다”며 “돌봄센터는 가정형편, 소득수준 등 자격을 따지지 않고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다. 이처럼 다함께돌봄센터는 소득이나 재산 수준에 상관없이 초등학교 자녀를 둔 모든 가정이 신청할 수 있다. 맞벌이·한부모·다자녀 가정의 초등학교 자녀는 우선 대상이다.

강경애(48) 센터장은 “학교, 학원 등 많은 스케줄로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센터 내에서만큼은 편안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곳은 편안한 공간이어야 한다”며 “돌봄센터는 누구나 와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곳이란 걸 알아가고, 마을 공동체를 이어가는 역할을 우리 아이들이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돌봄센터로 인해 직장 다니는 엄마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일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전국 돌봄센터 중 처음으로 설치한 센터 내 ‘어린이식당’에서는 아이들의 간식과 식사 급식이 이뤄져 퇴근이 늦은 엄마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종종걸음을

하지 않아도 된다. 어린이식당만 이용하는 학생들도 있다. 센터를 이용하지 않지만 학원 다녀오는 길에 들러 식사하고 집으로 간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다함께돌봄센터 개소로 초등학교 돌봄 사각지대가 없어지고 온종일 돌봄체계가 마련됐다.

취재 윤현자 기자 yoonh1107@naver.com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

- 1호점 : 은행1동(5월 15일 개소식)
- 2호점 : 위례역 푸르지오 4단지(9월 2일 개소)
- 3호점 : 백현마을 3단지(11월 개소 예정)
- 4호점 : 상대원3동(12월 개소 예정)
- 이용료 : 돌봄 형식에 따라 월 10만 원 이내 (프로그램 운영 및 급식·간식비 등에 활용)
- 센터 내 어린이식당 : 학기중(석식), 방학 중(중식), 식당만 이용 가능
- 운영시간 : 월~금(주5일), 학기중(11:00~20:00), 방학 중(09:00~18:00)

원격결제로 더 편리하게, 계좌 연결로 더 쉽게

학원비 결제도 모바일 성남사랑상품권 이용하세요!

지난 4월 모바일상품권 출시로 성남에서는 전국 최초로 지류형, 카드형, 모바일 3종의 지역화폐가 사용되고 있다.

그중 모바일 성남사랑상품권은 모바일 앱(착, chak)을 설치하면 상품권 구입·결제부터 복지수당 신청, 결제 계좌 연결, 가맹점 검색 등 이용방법이 편리해 사용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5월부터는 지자체 최초로 모바일상품권으로 학원비 원격결제가 가능해졌다. 모바일상품권 학원비 원격결제 방법 또한 아주 간단하다. 모바일 앱(착)에서 상품권 결제를 위해 계좌를 연결하고 상품권을 구입한다. 계좌 연결 또는 가상계좌 입금으로 구매가능하다. 계좌는 1회만 연결하면 된다. 홈 화면에서 가맹점 → 원격결제를 선택하

면 원격결제가 가능한 학원 목록이 나온다. ‘내 주변’을 선택하면 지도에서도 쉽게 결제 가능한 학원을 찾을 수도 있다. 결제하고자 하는 학원 선택 → 과목선택 → 닉네임 입력 → 결제(간편 비밀번호·패턴 입력)하면 된다.

직접 학원까지 가지 않아도 아이 손에 카드를 보내지 않아도 어디에서든 학원비 결제가 5분이내로 가능해졌다. 성남사랑상품권은 상시 6% 할인가로 구입(월 50만 원 한도)할 수 있어 결제의 편리함에 할인쿠폰까지 받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또 앱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정보를 한 번만 등록해 놓으면 결제 시 자동으로 현금영수증 발행 및 소



모바일 성남사랑 상품권 로고

집에서 원격으로 학원비 결제

득공제(30%)도 된다. 이렇게 편리하고 알뜰한 모바일 성남사랑상품권 이용은 지역경제에는 활기를, 가정경제에는 웃음을 줄 수 있다.

취재 나안근 기자 95nak@hanmail.net



중앙지하상가 <청년예술창작소>

청년예술가들의 창작공간, 주민과 만나다

9월 30일 중원구 산성대로 중앙지하상가에 청년 예술창작소가 문을 열었다(이하 창작소). 청년예술 창작소는 지역청년예술가들의 창작공간으로 지역 주민과 상인, 청년예술가가 함께 만들어 가는 공간이다.

창작소에서는 3개의 공공예술 프로젝트팀이 각각 청년PAN(판), 그린마인드, 우리 동네 아지트만들기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들에게 창작소는 어떤 곳일까. '우리동네 아지트만들기'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현장을 찾아가 봤다. 로컬스프리팀과 학생들이 힙합에 맞춰 몸을 움직이고 있었다. 중앙지하상가를 지나는 사람들 사



청년예술창작소 독립운동가 웹툰 전시

이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데 어색함이 없었다.

로컬스프리의 이정환 씨는 "학창시절 추억이 담긴 공간에서 춤을 가르치니 지금까지 해보지 못한 수업을 진행하는 느낌이다. 이곳에서 춤을 춘다는 것을 상상해 본 적이 없다"며 창작소에서 프로그램을 하게 돼 좋다고 했다.

춤 배우던 용효준(성남테크노과학고 3) 군은 "댄스를 배우려면 학원비가 드는데 이렇게 무료로 배울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좋다. 춤을 배우다 배고프면 먹을 수 있는 곳도 있고 필요한 물건을 살 수도 있는 곳에 창작소가 있다"고 했다.

창작소는 세 팀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다. 생강컴퍼니팀은 지역청년예술가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장을 마련했다. 이 밖에도 상인과 지역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독립영화를 제작하고 패션쇼와 전시도 할 예정이다.

로컬스프리팀은 버스킹에 참여한 청년예술가들을 위한 영상과 사진을 제작한다.

파크프로젝트팀은 11월 11~23일(4회, 화·목) 싱잉볼(노래하는 그릇)을 이용한 명상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전시도 할 예정이다. 창작소 자체에서 준비한 전시, 유아와 초등생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다.

성남시장은 "문화적 플랫폼을 지지한다. 초심을



중앙지하상가에 문을 연 청년예술창작소

잃지 않고 지원하겠다"며 청년예술창작소의 활동이 상인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청년예술창작소 031-721-8124(수진역 중앙지하상가 10번 출구)
취재 박인경 기자 ikpark9420@hanmail.net

<로컬스프리 댄스>

- 일시: 월·수 오후 4~6시 • 대상: 주민
- 일시: 화·목 오후 2~4시 • 대상: 상인

<중앙지하상가에 공룡이 나타났다!!>

- 일시: 11월 7~21일 매주 목 오후 4시~5시 30분
- 대상: 6~9세(10명)

<똑딱똑딱 예술놀이 점포>

- 일시: 11월 6~27일 매주 수 오후 3시 30분~5시
- 대상: 초등학교 1~3학년(15명)

누리·반디버스를 타다

함께 누리는 교통복지... 대중교통 사각지대 주민 불편 덜어

성남시는 운송업계의 근무시간 변화에 따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5월부터 성남형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다.

교통노선이 많지 않은 지역인 갈현동, 공내동, 울동, 상적동, 금토동, 석운동 등을 운행하는 **누리버스**와 지하철 역사를 중심으로 오후 1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심야새벽 시간대에 시민을 만나는 **반디버스**를 성남형 공공 버스로 운행한다.

누리버스는 '교통복지를 함께 누리다'는 의미를, **반디버스**는 어둠을 밝히는 '반딧불'을 상징해 이름을 지었다. 아직 시행 6개월이 채 넘지 않은 터라 버스 이름도 낯설어 하는 시민들을 위해 이 공공버스가 어떻게 운행되는지 살펴봤다.

누리버스는 현재 3개 노선이 운영 중인데, 울동 새마을 연수원을 출발해 서현역, 판교역을 경유, 고등지구 청계산 옛골을 운행 중인 누리 2번을 울동공원사거리에서 올라탔다. 서현역과 판교테크노밸리를 차근차근 거쳐, 청계산 옛골까지 한 번에 간다니 차창 밖으로 신도시의 가을 정취를 느끼기에 더없이 좋은 버스 노선이다.

대학생 김지은(20대) 양은 "서현도서관 앞에서 판교 붓들마을까지 한 번에 갈 수 있어 편하다. 반대로 타면 울동

공원 앞에서도 바로 내릴 수 있어 친구들과 종종 이용한다. 버스 디자인과 색깔이 산뜻해서, 보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이용소감을 전했다.

누리 2번은 아침 5시부터 저녁 10시까지 15~20분 간격으로 배치되고 있으며, 요금은 성인 카드 기준 1,450원이다. 예상보다 이용객이 꽤 있었고, 애매한 노선들이 투입되던 울동과 금토동에 확실하게 운행하는 **누리버스** 덕분에 환승도 좋고 생활권이 넓고 편리해졌다는 의견을 내는 승객들이 많았다.

현재 성남의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2개 노선을 운행하



반디2번 오리역~남한산성입구 운행



누리2번 새마을연수원~고등지구 운행

는 **반디버스**는 오리역에서 출발해서 남한산성입구역으로 가는 반디 2번을 이용해봤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길거리는 눈에 띄게 한산했다.

직장인 박상호(30대) 씨는 "버스 끊기는 시간에는 택시를 이용하는 일이 많았는데, 이 버스가 생긴 후에는 돈도 아끼고, 지하철역 앞에서 이용 가능해서 편리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심야에 택시 타기 무서웠는데 **반디버스**가 생겨 안심하고 탄다는 여성승객도 있었다. 요금은 성인 카드 기준 2,800원이며, 배차간격은 40분이다. 주말에는 운행하지 않는다.

성남시민의 다양한 의견이 잘 반영돼, 교통소외 없이 적절한 노선으로 꼭 필요한 시간과 장소를 달리는 누리·반디버스로 자리 잡기를 기대해 본다.

취재 양시원 기자 seew2001naver.com

♻️ 착한 실천, 지구를 지킨다!

시민과 함께 펼치는 성남시 미세먼지 저감 정책

기후에너지과 신설... 기후변화·신재생에너지·미세먼지 집중



미세먼지 청소 살수차



환경전광판

성남시는 10월 조직개편을 하며 기후변화와 신재생에너지, 미세먼지에 대한 정책을 총괄하는 기후에너지과를 신설했다.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환경문제인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업무에 집중하고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성남시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TF추진단을 구성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성남시 미세먼지 발생량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도로와 관련된 부분이다. 차량 통행을 줄이고 노후한 경유차 정책에 관심을 갖는 것이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는 맑은 공기를 위해 미세먼지 모니터링단을 구성,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학교, 공사장 등의 미세먼지를 모니터링하고 공기질을 개선해 나가려고 한다. 성남시는 8개소에서 대기오염을 측정하고 있다. 이렇게 측정된 대기오염 자료를 전광판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다.

취재 박인경 기자 ikpark9420@hanmail.net

성남시의 미세먼지 대책 중 도로와 관련된 정책

-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 : 전기자동차 구매 시 1대당 1,400만 원 지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확충(2019년 10월 현재 급속충전시설 58개소)
- **전기이륜차 보급** : 전기이륜차 구매 시 1대당 250만 원 지원
- **천연가스버스(CNG) 보급** : 운수회사 천연가스버스 구매 시 1대당 700만~1200만 원 지원
- **전기버스 보급** : 운수회사 전기버스 구매 시 1대당 1억6천만 원 지원
-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비 부착 지원(신청 1544-0907)** : 배출가스 검사 불합격 경유차와 2.5톤 이상 5등급 경유차 및 건설기계 대상
저감사업 참여 시 : 배출가스 정밀검사, 환경개선부담금 3년 면제
-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3가지 조건 충족, 신청 1577-7121)** : 대기관리지역 2년 이상 등록, 6개월 이상 차량 소유, 관능검사 적합
- **노후 경유차 수도권 운행 제한 단속** : 주요도로 카메라 설치 후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수정구, 분당구 각 2개 지점 9대 카메라 설치
-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 2009년 이전 등록된 어린이 통학차량 폐차 후 LPG차량으로 구매 시 대당 500만 원 지원
기후에너지과 미세먼지대응팀 031-729-3641
- **11월까지 75개소 버스정류장 주변에 미세먼지 측정센서 설치**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도로청소차량 효율적 운행
스마트도시과 스마트도시기획팀 031-729-2463

생태이야기

결초보은(結草報恩) - 강하고 질긴 풀, 수크령

수크령은 가을 길가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여러해살이풀이다. 강아지풀에 비해 훨씬 크다. 꽃이삭 생김새가 긴 브러시 모양으로 독특하고 보라빛을 띠고 있어 아름답다. 그러나 앞보면 안 된다. 잎이나 꽃대를 손으로 뜯으려다가는 손을 베이고 만다. 예리한 낫으로 강하게 내리쳐야 벨 수 있다. 줄기가 억세고 아주 질기다.

수크령이란 이름이 생소해 우리말인가 궁금해진다. '그령'은 그러매대(잡아매다, 묶다)라는 동사에서 출발해 '그령'을 거쳐 '그령'으로 변한 풀의 이름이다. 수크령과 비슷하며 꽃모양만 다른 그령이라는 풀이름 앞에 더 억세다는 뜻의 '숫'을 붙여 '숫그령'으로 불렀고 세월이 흐르면서 '수크령'으로 변했다.

억센그령이라는 뜻을 지닌 수크령은 결초보은(結草報恩)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결초보은은 풀을 묶어 은혜를 갚음, 즉 죽어서도 잊지 않고 은혜를 갚음을 뜻하는데 그에 얽힌 이야기가 전해온다.

춘추시대 진(晉)나라 군주 위무자에게 애첩이 있

었다. 어느 날 병석에 눕게 된 위무자는 아들 위과를 불러 자신이 죽으면 애첩을 재가시키라고 말했다. 그러나 위독해진 위무자는 자신이 죽으면 애첩도 함께 묻으라고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다.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남긴 전혀 다른 두 유언 사이에서 고민하던 위과는 애첩을 순장(殉葬)하는 대신 다른 곳에 시집보내면서 "난 아버지께서 맑은 정신에 남기신 말씀을 따르겠다"고 했다.

세월이 흐른 후 이웃 진(秦)나라가 진(晉)나라를 침략했



가을의 들풀, 탄천의 수크령

을 때 한 전투에서 위과의 군대가 적군의 공격에 몰려 위태로운 처지에 빠졌다. 그때 한 노인이 나타나 무성하게 자란 풀들을 잡아매어 온 들판에 매듭을 만들어 놓았다. 적군들은 말을 타고 공격해오다 거기에 걸려 넘어져 이리저리 나뒹굴었다. 위과는 그 틈을 타 공격해 손쉽게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위과는 그 노인이 누구인지 궁금했지만 어디론가 홀연히 사라져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위과의 꿈에 그 노인이 나타나 말했다. "나는 그대가 시집보내 준 여자의 친정아버지요. 그대가 첫 번째 유언대로 내 딸을 살려 주어, 그 은혜에 보답했다오." 이 이야기에서 '결초보은(結草報恩)'이 유래했다고 한다.

탄천변의 가을도 깊어간다. 무성했던 일년생 풀이 지고 다른 풀과 구별되는 강인한 아름다움으로 탄천변 수크령은 가을바람에 흔들리며 반짝이고 있다. 내가 잊고 지내는 고마운 사람은 없는지 한 번 생각해 봐도 좋을 것 같다.

취재 김기숙 기자 tokiwife@naver.com



기억하는 역사, 성남시 독립운동가 웹툰 프로젝트 ②

고광순 | 김산 | 김알렉산드라 | 윤세주 | 이봉창 | 이육사 | 조명하 | 허은



독립운동가 웹툰 보기
(다음웹툰 → PICK → 컬렉션)

연곡의 수많은 봉우리 울창하기 그지없네.
 나라 위해 한평생 숨어 싸우다 목숨을 바쳤도다
 전마(戰馬)는 흩어져 논두렁에 누워 있고
 까마귀떼만이 나무 그늘에 날아와 앉는구나
 나같이 글만 아는 선비 무엇에 쓸 것인가
 이름난 가문의 명성 따를 길 없네
 홀로 서풍을 향해 뜨거운 눈물 흘리니
 새 무덤이 국화 옆에 우뚝 솟았음이라

- 매천(梅泉) 황현(黃玹).
 전남 구례군 연곡사 인근에서 순국한
 고광순의 무덤을 찾은 후에 남긴 시



고대장

임진왜란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이어지는 고광순 가문의 위대한 의병활동기
 글·그림 김현민



고광순 (1848-1907)

1895년 의병을 모으지만 선유사의 권고로 자진해산한다. 1907년 의병장으로 추대돼 지리산 근처에서 헌병 분견소를 습격한다. 한 달여 후 연곡사에서 일본 군경과 전투 중 전사했다.

시베리아의 딸, 김알렉산드라

볼셰비키 혁명가, 노동인권을 위해 투쟁한 독립운동가, 김알렉산드라의 삶을 그린다.
 글·그림 김금숙



김알렉산드라 (1885-1918)

1914년부터 러시아에서 통역관으로 민족과 국적을 넘어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에 힘썼다. 1917년 러시아 볼셰비키당에 가입하고, 이동휘 한인사회동맹 탄생에 일조한다. 멘셰비키가 볼셰비키를 몰아낼 때 총살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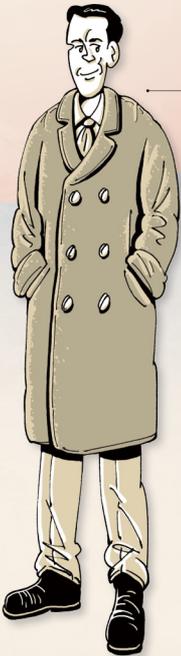
영원의 총탄, 윤세주

의열단과 조선의용대의 영혼. 마흔 둘 짧은 삶이지만 일제 심장을 찢은 영원의 총탄이 되다.
 글 이상훈·그림 서 씨



윤세주 (1901-1942)

만세운동을 주도하고, 독립신문 밀양지국을 운영하다 체포된다. 출옥 후 만주로 망명해 조선의열단 창설에 참여하고 조선의용대를 창립한다. 1942년 중국 태항산에서 일본군과 격전을 벌이다 전사했다.



나! 이봉창

동경의거를 일으킨 이봉창의 과거를 따라간다. 그는 왜 일왕에게 폭탄을 던졌나!
 글·그림 김수박



이봉창 (1901-1932)

1931년 상해에서 김구 선생과 거사를 준비하고 1932년 일왕에게 수류탄을 투척한다. 이후 사형을 받고 순국한다.



아리랑

어느 조선인 혁명가가 연안에서 미국인 여기자에게 들려주는 비운의 독립운동가들
 글·그림 박건웅



김산 (1905-1938)

1920년 이후 상해임정에서 일한다. 중국공산당 가입 후 '혁명행동' 부주필, 북경시위원회 조직부장, 항일군정대학 교수를 지낸다. 미국인 여기자에게 자신의 생애를 구술, 『아리랑』으로 출간된다. 중국공산당이 일본 간첩으로 몰아 처형, 1983년 복권됐다.

초강의 사

저항시인이 아닌, 독립운동가로서의 마지막 생애 1년을 재구성하다.
 글·그림 천명기



이육사 (1904-1944)

일제 식민치하에서 강인한 저항 정신을 노래한 민족시 30여 편을 발표했으며, 전 생애를 통해 17회 투옥됐다. 1944년 중국 북경으로 압송돼 일본 총영사관 감옥에서 순국했다.



조명하

황해도 신전에서부터 일본, 대만으로 이어지는 단독 독립운동 전개 과정
 글·그림 조명원



조명하 (1905-1928)

1928년 대만에서 일왕의 장인이자 육군대장인 구니노미야 구니히코에 독검을 던지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친다. 현장에서 체포돼 사형선고를 받고 타이페이 형무소에서 스물 네살의 나이로 처형됐다.



만동이 틀 때

항일의병장 집안의 딸로 독립투쟁 집안으로 시집간 허은 여사의 서간도 항일 이민 개척사
 글·그림 차성진



허은 (1907-1997)

의병항쟁을 벌인 일가친척과 함께 1915년 서간도로 망명한다. 1922년 석주 이상룡의 손자와 혼인하면서 1932년 귀국 때까지 만주독립운동의 현장에서 독립군들을 뒷바라지하며 고난을 함께한다. 허은 여사는 이육사의 외사촌 누이다.



행복마을공동체
-
야탑1동

행복마을 야탑1동 마중물 '사랑방 손님과 주민'



1 쓰레기 봉투 접는 수업
2 가장 인기 있는 명리학 강의
3 성남종합버스터미널에 주민들이 벽화를 그리고 있다.
4 스마트폰 활용 따라해 보기
5 어린이 가족공예

'야탑1동 마중물' 공동체가 주민들과 함께 마을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있다. 2019 성남시 마을 만들기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시작한 야탑1동(동장 김순진) 행정복지센터 2층 사랑방에서는 9~11월 매주 주민들을 대상으로 17회에 걸쳐 4개 강좌가 열리고 있다. 임인혁 마을코디의 도움을 받아 10여 회 회의를 열고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고 강사를 섭외했다.

- '대화의 기술(강사 박인옥)' 강좌 _ 100세 시대 긍정적인 생각으로 살아가기 위한 소통의 시간으로 따뜻한 대화기술을 배웠다.
- '초보 백세시대 스마트하게 사는 법, 스마트 활용 콘텐츠 제작' 강의 시간이 끝나자 어르신 두 분이 소감을 피력하는 글을 쓰셨다. '웬만큼 사용해 별로 어려울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사진을 찍고 동영상 배워면서 새로운 정보나 지식을 얻을 수 있어서 감사했다. 다시 배울 수 있도록 다음에는 횟수를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어르신의 편지글은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 '공간을 넓게, 생활을 편리하게' 주방 냉장고, 옷장을 어떻게 하면 넓게 사용할 수 있을까? 새로움을 발견하는 '정리수납' 시간. 주민들은 쓰레기봉투 접는 방법도 손에 익히고, 상자를 활용해 냉장고 공간을 잘 활용하는 방법을 재미있게 배웠다.
- '명리학(命理學) 강좌' _ "어느 동네에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다. 노력하면 운도 바뀐다. 행동이



바뀌면 운도 바뀐다"는 손창록 강사의 명리학생활 속 풍수 강의는 인기 최고였다.

- '가족공예 시간' _ 어린이반과 성인반으로 나눠 진행했는데 결과물에 만족해하는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주민들은 말한다.

'야탑1동 마중물' 백현주 대표는 통장협의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마을이 보이기 시작했다.

시민들이 불편했던 애견놀이장을 일일이 서명을 받아 인적이 뜸한 곳으로 옮기는 일부터 시작했다. 홈플러스 주변에 나무를 심고, 튼튼, 나무, 새 등을 그렸다. 늘 지원을 아끼지 않는 정연화 주민자치위원장, 통장들이 바탕색을 칠하고, 고등학생들의 재능기부로 평화로운 그림의 벽화를 완성했다.

아파트 담장 밑에는 쓰레기를 치우고 '소곤소곤 오솔길'을 만들었다. 마을이 변해가는 모습에 자꾸 일을 만들어 내는 것 같다는 백현주 대표. 행정과 주민자치위원회, 통장이 하나돼 가꿔가는 '야탑1동 사랑방 손님과 주민'들은 마을을 가꿔가는데 필요한 마중물이 되고 있다.

24일에는 강원도 원주 흥업면 매지3리 문화와 역사가 공존하는 '매지 농악' 전수관, 박경리 '토지' 문학관을 다녀왔다. 11월 2일은 '야탑 맛고을 모던 축제'가 야탑역 광장에서 오전 11시부터 열려 한판 축제를 벌일 예정이다. '야탑1동 마중물'은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취재 이화연 기자 maekra@hanmail.net



생활법률 Q&A

선순위 가압류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Q A씨는 가압류된 주택을 임차해 전입신고를 마치고 살고 있습니다. 가압류채권자가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해 승소판결을 받은 후 임차주택에 대해 경매를 신청했고, A씨가 아닌 경락인이 경락받게 됐습니다. 경락인이 A씨에게 집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는데 A씨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을까요?

A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을 갖습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게 되면 주택의 양도나 임차주택의 주인이 바뀌더라도 임차인은 새로운 주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구

체적으로 임차인은 새로운 주인에게 남은 계약기간을 보장해 줄 것을 주장할 수 있고 계약기간이 끝난 경우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임차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례와 같이 임차인이 확정일자 받기 전 이미 임차주택에 가압류등기가 설정돼 있었고 그 가압류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해 누군가 임차주택을 경락받았다면, 임차인은 경락인에게도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판례는 '임차인이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입주·사용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그 임차권이 대항력을 갖는다 하더라도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

류등기가 마쳐진 후에 그 채무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임차한 자는 가압류집행으로 인한 처분금지의 효력에 의하여 가압류사건의 본안판결의 집행으로 그 부동산을 취득한 경락인에게 그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1983. 4. 26. 선고 83가카116판결)'고 봅니다.

판례에 의하면 사안의 경우와 같이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에 의해 임차주택이 경매절차로 넘어간 경우 임차인은 이를 경락받은 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어 A씨는 경락인의 요청에 의해 집을 비워줘야 할 것입니다.

변유진 변호사(성남시 무한돌봄센터 법률홍탁터) 031-729-2493



청년의 독서문화 지원, '첫 출발 책드림'

11월 14일~12월 5일 2차 신청하세요... 19세(2000년생) 대상

'책 속 한 줄 글귀, 희망꿈이 되고 미래 설계의 나침반 되다'

"책 읽을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은 19세(2000년생) 청년을 응원하는 전국 최초 '첫 출발 책드림 사업'은 책 한 권의 의미를 넘어 '내 책'을 갖는 기회를 청년들에게 주는 좋은 사업입니다. 여학생 두 명이 책드림사업에서 받은 모바일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책을 구매하러 왔어요."

수내동 코끼리서적 문선미 대표가 말한다.

공부만 하다가 엄마의 권유로 6권의 책을 처음 빌려보게 됐다는 한 학생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빨간머리앤>을 골랐다. 또 한 학생은 새로운 세대를 알아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며 임흥택 작가의 <90년생이 온다>를 골랐다. QR코드를 이용해 책값을 계산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에 다시 사용하겠다. 내 책을 갖게 돼 기분 좋다"며 여러 분야의 책을 둘러봤다고 했다.

문 대표는 "19세 청년을 위한 '책드림 사업'이 2만 원으로 청년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면 그만큼 사회가 변하고 좋아지지 않겠느냐"고 한다.



책 한 줄이 희망이라는 문선미 코끼리서적 대표

'첫 출발 책드림 사업'은

주민등록상 성남시에 거주하는 만 19세(2000.1.1~12.31) 청년 중 성남시립도서관과 공립 작은도서관에서 5월 1일 이후 6권 이상 도서를 대출한 청년에게 모바일 성남사랑상품권 2만 원을 연 1회 지급, 청년 독서문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국 첫 시행이며, 모바일 상품권은 성남의 지역서점에서 도서구입 시 사용할 수 있다.

'첫 출발 책드림 사업' 2차 신청은 11월 14일~12월 5일 받는다. 대상자는 신분증을 가지고 도서관지원과나 중앙·분당·서현·구미·판교·무지개·판교어린이·운중·중원어린이·해오름 도서관을 방문 접수하면 된다.



박소윤(19) 양

"11월 2차 신청 때는 꼭 신청하려고 해요"

박소윤(19) 양은 평소에 공부하는 대신 책을 읽지 않아서 엄마의 권유로 지난 7월부터 중원어린이도서관에서 주말 근무를 한다. 자연스럽게 많은 책을 접하다 보니 나름대로 책을 읽게 됐다.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제인 에어>의 매력에 책을 좋아하게 됐다. 지금은 소설 <렛미인>을 읽고 있는데 6권 다 읽으면 책드림에 신청해서 모바일 상품권을 받을 생각이라고 한다.

"19세 청년의 독서를 응원하는 '책드림 사업'이 참 좋다고 생각해요. 책을 빌리니 보게 되고, 재미를 느끼게 되니 '책드림 사업'에 관심이 가서 친구들에게도 많이 홍보할 겁니다."

도서관지원과 독서진흥팀 031-729-4673, 취재 이화연 기자 maekra@hanmail.net



만나봤습니다



김금숙 작가

『풀』 일본 출간 앞둔 김금숙 작가

독립운동가 웹툰에서 「시베리아의 딸, 김알렉산드라」 연재 중

김금숙 작가가 위안부 피해 이옥선 할머니의 삶을 그린 장편만화 『풀』이 내년 1월 일본에서 출간된다. 일본 일반 시민들이 출간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재 1차에 이어 2차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 중이다. 2차는 일본 젊은이들도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도록 책 가격을 낮추는 데 사용한다.

김 작가는 성남시 독립운동가 웹툰에서 「시베리아의 딸, 김알렉산드라」를 연재 중이다. 강화에서 작품 집필에 몰두 중인 김금숙 작가를 전화로 만났다.

먼저 『풀』 일본 출간에 대해 “일본 출간은 예상하지 못했다. 일반 시민들이 출간에 뜻을 모았다는 것, 펀딩이 그렇게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이 놀랍다. 이 책이 두 나라만의 문제를 넘어 인권을 말하고 보편성을 지니고 있기에 가능하고 현재 한일관계에서 더욱 의미있는 일”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일본 출간에 힘쓰고 번역도 맡은 스미에 스텔라 씨가 직접 이옥선 할머니를 찾아뵙고 소식을 전했다. 할머니가 많이 좋아하셨다고 한다.

김 작가는 프랑스에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소재로 단편 만화를 그렸는데, 그분들의 삶에 누가 되는 것 같아 내내 마음에 걸렸다. 그리고 기존 작품들과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이

문제를 폭넓게 다루고 싶어 『풀』을 시작했다. 3년 작업 끝에 2017년 8월 14일 일본군 피해자 위안부 기림의 날에 출간했다. 이후, 영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등 7개 언어로 번역되면서 해외 출간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 9월에는 프랑스 진보 성향 일간지 '휴머니티'가 주최한 '제1회 휴머니티 만화상'에서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했다.

『풀』은 어떤 작품인가? “이옥선 할머니의 증언을 바탕으로 담담하게 만들었다. 할머니는 가난한 서민의 딸로 일제 강점기 때 태어나 제국주의에 희생이 됐다. 본인뿐 아니라 가족의 인생도 바뀌었다. 우리는 이 그래픽 노블을 통해 전쟁 국가 범죄의 측면뿐 아니라 젠더와 계급 문제, 사회적 차별과 소외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또한 인간은 트라우마를 안고 어떻게 다시 삶을 계속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 인권이 무엇인지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풀』에서 잔혹하고 폭력적인 상황은 손이나 발, 나무나 바람과 같은 다른 이미지로 표현됐다. 김금숙 작가는 일상이나 여러 매체에서 폭력이 쉽게 드러나는 현실에서 그러한 상황을 직접적으로 그리면 독자들이 그 비인간성이나 심각함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고, 피해자들에게 이중삼중의 피해와 고통을 가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김 작가는 어느 날 고속도로에서 차가 갑자기 시동이 꺼지면서 멈췄을 때, 『풀』을 완성하기 전에 죽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풀』은 김 작가에게, 작가로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운명이자 숙명, 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산과 작품이었다.

『시베리아의 딸, 김 알렉산드라』에 대해서는 “그 당시 남성위주 사회에서, 이국땅에서 3개 국어를 하면서 노동자들의 인권과 연대를 위해 일한다. 노동자의 딸이자 노동자였다. 국적·민족·인종·남녀를 넘어 국제주의자 같은 인물로 매력적이다. 또 엄마로서, 혁명가로서 갈등과 고뇌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 인간적인 모습을 함께 보여 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김 작가는 원폭피해자, 제주4·3, 발달장애인을 작품으로 그렸다. 역사에서 사회에서 소외받고 가난한 이들에게 마음이 간다고 한다. 붓과 먹으로 작품을 그리는 그의 손에는 일곱 살에 떠나왔지만 잊히지 않는 고향의 아름다운 바다와 산이 담겼고, 소리꾼 아버지의 소리가 담겨 있다.

김금숙 작가는 고 박완서 작가의 『나무』를 만화로 집필 중이다. “작품을 통해 인간을 이해하고자 한, 인간을 사랑하는 작가로 기억되고 싶다”는 그와 그의 작품들을 힘껏 응원한다.

취재 전우선 기자 folojs@hanmail.net



『풀』 일본 출간 기사를 실은 일본 신문. 김금숙 작가 제공

성남시 건강도시 조성 방안 모색, 11월 7일 시청서 심포지엄 연다



성남시는 11월 7일 오후 2시 30분부터 5시까지 성남시청 한누리실에서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강도시 심포지엄을 연다.

심포지엄은 시민들이 중년기 이후 건강을 잘 관리해 건강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시 생활 속 건강환경 조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다.

‘100세 시대 건강관리, 건강도시가 답이다’를 주제로 1, 2부로 나누어 진행된다.

1부는 치매 예방에 대한 부스가 운영된다. 2부는 치매, 갱년기, 구강관리를 주제로 발표하고 중년기 이후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환경 조성 정책 발굴, 수정·중원구와 분당구간 건강 격차 해소 방안과 성남시 공공의료와 건강도시 연계방안을 찾아보는 자리다.

성남시 의사회와 한의사회, 치과의사회로부터 추천받은

왕민정 의사, 김제명 한의사, 고재훈 치과의사의 질별별 예방관리법 발표와 은수미 성남시장, 이중의 성남시의료원장 등 5명이 패널로 나와 의견을 내고 시민의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된다.

시는 그동안 건강도시 인식강화를 위해 ‘건강도시 INSC’이라는 신규사업 발굴 원칙을 정했다. INSC는 재미있게 (Interestingly), 어렵지 않게 (Not difficulty), 안전하게 (Safely), 비싸지 않게 (Inexpensively), 지속적으로 (Consistently)의 영어 첫 글자를 따서 만들었다.

성남시는 앞으로도 실무추진단 회의를 정례화해 건강개념을 반영한 사업 발굴에 힘쓰는 등 건강도시 조성으로 고령사회의 부양부담과 의료비를 줄이고 시민이 건강한 성남을 만들 계획이다.

공공의료정책과 건강지원팀 031-729-2192



알아두면 좋아요

개인정보 영구삭제 서비스

성남시는 관내 기업과 가정에서 컴퓨터 등을 폐기할 때 중요문서 등을 완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폐기함으로써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개인정보 영구삭제 서비스를 실시한다.

관내 기업 및 시민 누구나 전화(031-729-2455)로 방문예정일, 삭제 수량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한 방문일에 관내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 매체 종류와 수량이 기재된 삭제서비스 요청 공문(개인 제외)과 삭제할 저장매체를 가지고 성남시청 8층 정보통신과로 방문하면 된다.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해 삭제 신청서를 작성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정보통신과 정보보호팀 031-729-2455

조상 땅 찾아주기

성남시는 효율적인 토지 관리와 시민의 토지소유권 보호 일환으로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한 '조상 땅 찾아주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본 서비스는 시청 토지정보과나 가까운 구청 시민봉사과에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지참해 직접 방문신청하면 된다. 재산권은 개인정보에 해당되므로 조상 땅에 대한 조회신청은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본 서비스와 함께 '내 토지찾기 서비스'가 가능하며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 직접 방문하거나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http://www.onnara.go.kr)에 접속해 '내 토지찾기'를 클릭하면 공인인증서로 등록 후 조회 등 출력할 수 있다.

※ 자세한 문의사항은 시청 토지정보과 및 각 구청 시민봉사과로 문의

성남시 토지정보과 지적팀 031-729-3363
수정구 시민봉사과 토지정보팀 031-729-5102
중원구 시민봉사과 토지정보팀 031-729-6101
분당구 시민봉사과 토지정보팀 031-729-7102



모란시장, 모란종합시장, 모란전통기름시장이 있는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모란 상권 일대

성남시 모란상권 특화에 40억 원 투입
철판야시장·고소한 기름·맛집거리 조성... 황금상권으로 활성화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모란상권 일대에 오는 2022년 말 철판야시장·고소한 기름·맛집거리 등 3개의 특화 거리가 조성되고 기름연구소가 생긴다.

성남시는 최근 경기도가 공모한 상권진흥구역 지정·지원 사업에 선정돼 총사업비 40억 원(시·도비 각 50%)으로 모란시장, 모란종합시장, 모란전통기름시장이 있는 둔촌대로 모란상권을 이같이 특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특화환경 조성, 활성화 사업, 조직 운영 등 3가지의 '성남 모란상권진흥구역 사업'을 편다.

모란시장의 철판야시장 거리, 모란전통기름시장의 고소한 기름 거리, 음식점 밀집 지역의 맛집 거리 조성을 통해 특화 환경을 만든다.

모란종합시장에는 기름연구소(로스팅 랩)를 설치해 특화 상품인 기름 연구와 개발, 카페, 전시, 교

육 등 복합공간으로 활용한다.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는 공동 브랜드를 구축해 상권의 정체성을 부여하고, 상품과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점포별 활력 사업을 추진한다. 볼거리와 즐길거리 확산을 위한 마케팅 홍보 프로그램도 개발 운영한다.

각 사업은 조직 강화를 통해 추진한다. 상인과 임대인, 주민, 전문가로 구성된 상권진흥협의회를 중심으로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상인회가 협력하는 민관 거버넌스가 주축이 된다.

시는 상권진흥구역 사업 추진을 통해 현재 하루 평균 2만3천여 명인 모란상권 유입 고객을 3만여 명 수준으로 끌어올리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국을 대표하는 '황금상권'으로 모란역세권을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다.

상권지원과 상권활성화팀 031-729-8972

Advertisement for 'Shinim' (שמ) political fund. Features a wind turbine and a person walking. Text includes '중간 정치후원', '깨끗한 정치로 가는 길입니다', and '정치후원금 기부하고, 좋은 정치로 돌려받으세요'.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차량, 모두 45대로 늘어
"어려운 이웃에 촘촘한 서비스"

성남시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10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맞춤형 복지 차량을 추가 보급했다.

10월 10일 '10대의 맞춤형 복지 차량과 키박스 전달식'에서 전달한 차량은 친환경 전기차(기아 쏘울EV)다.

10월 1일 조직 개편 때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한 수정구 양지동, 복정동, 분당구 서현1동, 서현2동, 정자동, 정자3동, 야탑2동, 구미동, 판교동, 이매1동에 각 차량이 배치됐다.

복지담당 공무원이 거동불편자·저소득·취약계층 방문 상담, 생활 실태와 현장 확인, 긴급 출동, 복지 사각지대 발굴, 이웃돕기 물품 전달 때 사용한다.

성남시는 최근 2년간 35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맞춤형 복지 차량을 보급한 데 이어 이번 추가분까지 복지 전용차는 45개 동(전체 50개 동)에 한 대씩 모두 45대로 늘게 됐다. 더욱더 촘촘한 복지 서비스를 펴 어려운 이웃을 만



져 찾아가 적시에 지원하는 선제 복지 행정 체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앞서 맞춤형 복지 차량을 운행 중인 35개 동 행정복지센터는 복지담당 공무원들의 기동력을 높여 월평균 424건의 취약계층 방문 서비스를 펴고 있다. 차량 지원 전 월평균 60건이던 방문 서비스와 비교하면 7배 늘어난 수준이다.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031-729-2834



전 세계 최초 자동배설처리 케어비데, 큐라코

환자·가족·간병인을 위한 최고의 선택 배설처리 돌봄 로봇

큐라코 케어비데는 외상환자(오랜 기간 누워서 병을 치료하는 환자. 고령자, 중증환자, 장애인 등)의 대소변을 종이 기저귀 없이 자동으로 처리하는 ‘자동배설케어 시스템’이다. 전 세계 최초로 외상환자를 위해 제품과 서비스가 융합한 제품(PSS: Product Service System)이다. 내장된 센서가 대소변을 감지하는 즉시 처리하고, 비데로 청결히 세정 후 온풍 건조까지 모든 과정을 자동으로 실행한다. 24시간 “세척은 말끔히, 비데로 깨끗이, 건조는 쾌적하게”를 완성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성남의 기업 큐라코를 찾았다.

라틴어로 ‘돌본다’는 의미인 큐라코는 제품 이름이면서 (주)큐라코의 이름이다. 대소변처리하는 환자들, 특히 외상환자들의 가장 큰 문제다.

큐라코는 기저귀를 사용해야 하는 환자의 수치심을 해결하고, 욕창·요로감염·기저귀 발진 등 피부트러블 및 감염예방, 깔끔한 대소변 처리로 환자의 정서적 안정에 일등공신으로 꼽힌다.

“저도 5년간 병상에 계셨던 선친을 간병한 경험이 있어 큐라코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야간에 기저귀를 교체하러 일어나지 않아



도 되니 너무 좋다는 간병인과 보호자들, 냄새가 없으니 환경 자체가 정말 쾌적해졌다는 후기, 이제 기저귀를 안 쓰니 사람처럼 사는 것 같다고 인사하시는 어르신들을 보면 가슴이 뭉클합니다.”

이훈상 대표의 소감이다.

큐라코는 세계 최고 수준의 고품화율을 경신하는 일본에서도 성능을 인정받아 현재 일본 개호보험에서 외국제품으로는 최초로 90% 공적 급여를 지원하는 제품이다. 일본 아사히신문 칼럼에서 ‘기저귀를 대체할 우수 제품’으로 호평하고, 일본 사용자들에게 요양시설의 필수품이다, 착용감이 정말 좋다 등 감사 편지가 오기도 한다.

기술 개발에만 13년이 소요된 큐라코는 대소변 수발에 따르는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덜고, 자외선 살균과 냄새제거장치, 기저귀컵 자동세척, 자동 살균·소독 시스템 등 혁신적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착용 시 좌우 30도 이상 움직일 수 있으면서 남녀 신체구조에 따른 성별 모듈(남성용, 여성용 기저귀컵이 다르다) 등 독보적인 자동배설처리 의료 로봇이다.

현재 미국, 노르웨이, 독일, 이탈리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과 국무총리상을 들고 있는 큐라코 이훈상 대표



독일 뒤셀도르프 MEDICA 전시회에서 시연 중인 이훈상 대표

아, 중국, 싱가포르 등 전세계 20개국에 수출 중이고, 현재 국내·해외 등록특허 45개, 출원특허 39개 등 84개의 특허 출원 및 등록을 마쳤다. 국내는 물론 미국 FDA, 유럽 CE, 일본 PSE 등 해외 인증도 다수 보유하고 있다. 전남 광양시, 경남 김해시에서는 중앙정부(산업통상자원부)와 지자체 매칭지원으로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 보급 중이고, 2020년에는 전국적으로 보급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배설처리 관련 위생전문가(케어위생사) 파견 서비스까지 계획하는 큐라코. 앞으로의 변화와 발전이 주목된다.

큐라코 031-701-1555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52, 307호(상대원동, 선택시티2)

취재 이훈이 기자 exlee1001@naver.com

칭찬해요!

“우리 동네엔 냉장고를 채워 주는 산타클로스가 있어요”

GS슈퍼마켓 위례중앙점, 희망등대 푸드뱅크와 2년째 나눔 실천

수정구 위례 35단지 ‘희망등대 작은도서관’에 가면 사랑으로 채워진 먹거리가 가득한 냉장고가 있다. 이름하여 ‘희망드림 냉장고’다.

이 냉장고가 특별한 이유는 희망등대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이면 누구나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이 냉장고 속 먹거리를 꺼내 먹을 수 있어서다. 도서관에 책 보러 온 어린이도, 멀티프로그램실 동아리 모임에 참석한 주부도, 지나가다가 들른 동네 어르신도 취향에 따라 우유, 음료수, 아이스크림, 과자나 빵 등을 편하게 꺼내 먹을 수 있다.

도서관에 왔던 김민규(11) 어린이는 우유 한 개를 꺼내 마시며 “우리 학교에도 이런 냉장고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희망등대 작은도서관 박진형 관장은 “날마다 희망드림 냉장고를 채워주는 산타클로스는 GS슈퍼마켓 위례중앙점”이라고 소개하며 “기부 식품을 선별하는 작업이 만만치 않아 점장은 물론 직원들까지도 업무를 연장하면서까지 지난 2년간 지속적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있어 고마운 마음이 크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GS슈퍼마켓 나인호 위례중앙점장은 “희망등대

푸드뱅크와 연계해 기부 식품을 지역민과 나눌 수 있어서 기쁜 마음으로 동참한다”면서 “날마다 기부 물품을 수령해 가는 박진형 관장의 협력으로 순조롭게 기부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나눔 실천의 공을 박 관장에게 돌렸다.

GS슈퍼마켓 위례중앙점은 2017년 10월부터 희망등대 푸드뱅크에 기존 식품뿐 아니라 생활용품까지 상당의 물품을 나눔 활동에 보탬다. 기부가 가능한 물품을 유통기한에 따라 선별하고, 유제품 같은 신선식품류는 매일 매장을 직접 방문해 수령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박 관장은 “기부물품은 당일 배분을 원칙으로 한다”면서 박 관장이 자리를 비울 때는 가족들이 동원돼 물품을 수령해 배분한다고 했다.

기부 받은 식품과 물품은 ‘희망 냉장고’뿐만 아니라, 위례 31단지 경로당, 산성동 공부방, 양지동 홀몸노인, 수진동 자녀가 많은 집, 그리고 정자동 한솔마을 등 60여 가구에도 분배한다.



GS슈퍼마켓 위례중앙점 희망등대 도서관 냉장고



기부자에게는 나누는 기쁨을, 이용자에게는 수혜자라는 부끄러움을 최소화하는 배려와 섬세함에서 만들어진 ‘희망드림 냉장고’.

박 관장은 “지역에 산재된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많이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취재 정경숙 기자 chung0901@naver.com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성남시립합창단의 부흥 꿈꾸다

손동현 제6대 성남시립합창단 감독 겸 상임지휘자

1986년 창단된 성남시립합창단을 이끌어 갈 감독 겸 상임지휘자로 손동현 전 국립합창단 객원부지휘자가 위촉됐다. 손 감독은 부산대학교 음악학과를 졸업, 미국 Youngstown State University 합창지휘 석사학위, 미국 University of Kansas 합창지휘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이화여대와 한세대에 출강하고 있다.

10월 2일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취임 기념 연주회를 가졌으며 카를 오르프의 '카르미나 부라나'를 무대에 올려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Q1 성남시립합창단 감독 겸 상임지휘자를 맡게 되신 소감은?

11년간 미국에서 학업과 활동을 마치고 2년 전 귀국한 후, 전문합창단의 객원연주는 했지만 상임지휘자는 처음 맡았습니다. 그 첫 걸음을 명문 합창단 중 하나인 성남시립합창단과 함께 하게 돼 큰 영광이며, 동시에 지난 2년간 상임지휘자가 공석이었던 합창단을 새롭게 재건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도 느낍니다.

Q2 성남시립합창단의 새로운 미래비전이 궁금합니다.

성남시립합창단은 수도권에 전문합창단 시대의 서막을 연 전문혼성합창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국 합창계의 거장인 나영수 지휘자님을 포함, 다섯 분의 훌륭한 전임지휘자로 인해 수도권 명문 합창단으로 명성이 있었지요. 앞으로 새로운 재건과 웅비를 꿈꾸는 합창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립합창단의 본분에 맞게, 시민들을 위한 좋은 연주를 제공하고 외부행사, 즉 합창제·컨퍼런스·페스티벌·교류연주에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해 높은 수준의 음악적 완성도와 창의적인 기획으로 과거의 명성을 되찾고, 나아가 한국합창계를 대표하는 합창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3 지역은 물론 중앙무대, 나아가 세계 합창계와 교류할 계획이 있는지.

여건이 허락하는 한 많은 외부연주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국내외 합창축제나 세미나 참여, 타 도시 합창단들과의 교류 합창은 성남시립합창단뿐만 아니라 성남시의 이름을 알리고 브랜드화 시키는 데 일조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시립합창단들이 ACDA와 같은 다양한 국제 합창 페스티벌 참여, 초청연주를 통해 그 도시의 이름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남시립합창단 손동현 지휘자



Q4 지휘자로서团员들에게 특별히 강조하고픈 연주 지향점이 있다면?

저는 '전달'을 강조합니다. 다른 말로 '소통'이고 음악 자체가 소통의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합창단의 '소통'의 시작은 연습에서 온다고 봅니다. 연습에서 지휘자의 음악적 해석과 연주방식이团员들에게 정확히 전달되고 이해되고 공감될 때 최고의 앙상블 음악이 만들어지는 토대가 이뤄지고, 모두가 같은 이야기를 '합창'이라는 강력한 매체를 통해 전달할 때 관객들을 감동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Q5 전문연주단체뿐만 아니라 시민과 호흡하는 합창단을 위한 복안이 있다면?

시립합창단은 시민을 위한 단체로서 시민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음악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연주해야 할 것입니다. 전통적인 합창음악과 새롭고 시대에 맞는 다양한 성악음악 프로그램의 적절한 조합으로, 시민들의 눈높이와 기호에 맞는 음악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기획과 관중들이 즐거워하며 공감할 수 있는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취재 구현주 기자 sunlin1225@naver.com

특별기고

성남 천림산봉수 복원 완료, 평안화 오르는 세상을 기원

수정구 금토동 산 35번지에 위치한 성남 천림산봉수 복원사업이 9월 24일 완료됐다. 봉수(烽燧)란 햇불(烽)과 연기(燧)로써 변방의 군사 정보를 중앙에 알리던 통신 시설이다. 비가 오거나 흐린 날에는 화포나 북, 나팔, 깃발로 알리거나 봉수군이 직접 달려가서 보고했다. 이때 연기를 피우는 데 이리 풍을 사용했기 때문에 낭화(狼火) 또는 낭연(狼煙)이라고도 했다.

『경국대전』에 평화로운 날에는 1개의 화를 올리고, 적이 멀리 나타나면 2화, 경계에 접근하면 3화, 경계를 침범하면 4화, 전투가 벌어지면 5화의 봉수를 올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1개의 신호를 평안화 또는 태평화라 부르기도 했다.

봉수를 올리는 시설물을 봉수대 혹은 연대(煙臺)라고 하며, 근대적 통신 시설이 사용되기 이전 시대에는 가장 빠른 통신수단으로 부산에서 서울까지 12시간이면 신호가 도달했다. 조선시대 봉수제도는 전국에 다섯 개(5炬)의 직봉(直烽)노선을 배치하고, 직봉노선을 연결하는 간봉(間烽)노선을 배치해 거미줄처럼 통신망을 구성했다. 다섯 개의 봉수 신호체계는 오늘날의 마

이크로웨이브 통신체계의 원조라고 평가된다.

천림산 봉수는 천천산(穿川山)·천천현(穿川峴)·월천현(月川峴) 봉수 등으로 불리다가 조선 후기부터 천림산봉수로 불렸는데, 이처럼 이름이 다르게 기록되기는 했지만 위치의 변동은 없었다. 천림산봉수는 다섯 개 직봉 노선 가운데 두 번째 노선의 마지막 전달 봉수였다. 부산 다대포진 응봉에서 시작돼 용인 석성산봉수를 거쳐 천림산에서 그 신호를 전달받아 서울의 목멱산(남산)봉수에 전달했다. 천림



천림산 봉수지(복원 후)

산봉수의 근무인원은 홍경모가 편찬한 『중정 남한지(重訂南漢志)』에 봉수군 25명과 그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75명의 인원이 있다고 기록돼 있다.

천림산봉수는 우연한 기회에 위치가 알려졌다. 1995년에 광복 50주년 기념 통일기원 봉화제가 열렸는데, 당시 성남시의원과 성남문화원이 공동으로 제1회 봉화제를 인릉산의 '봉화폭'이라 불리는 곳에서 개최했다. 이듬해 제2회 봉화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윤치장 의병장의 증손자인 윤효상 씨가 현재 위치를 제보함으로써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1999년 10월에는 전국 최초로 봉수 학술회의가 성남문화원 주최로 열려 학술적 가치를 규명했고, 이어 한국토지공사(LH)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했다. 그리고 2002년 9월 경기도기념물 제179호로 지정됐다. 이후로도 성남문화원이 타 지역 봉수 유적 300여 곳을 조사하는 등 지속적인 연구가 이뤄졌고, 연조(煙竈, 굴뚝) 5기 중 바닥부분이 뚜렷한 1기를 제외한 4기의 연조와 방호벽, 담장시설을 복원하고 광복절 날 연기를 피워 올리는 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9월 24일 준공식을 갖게 됐다.

윤종준 성남학연구소 상임위원



중·러 항일유적지 탐방(9월 23~29일)



윤봉길 의사 의거 현장 탐방(9.28)

성남시의회 박문석 의장을 비롯한 23명의 시의원은 9월 23일부터 29일까지 6박7일 일정으로 '중·러 항일유적지 탐방 및 독립운동사 연구조사'를 위한 국외출장을 실시했다. 이번 출장은 3·1독립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 중국과 러시아 일대의 항일 독립운동 주요 유적지 탐방과 독립운동사 연구조사를 통해 선열들의 호국정신을 계승·보전하고, 최근 발생한 일본정부의 경제보복 조치에 맞서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가져야 할 역사관을 되새기고 한일관계에 대한 인식 재정립의 기회로 삼는 계기가 됐다.

1 일차 | 9월 23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해 신한촌 기념비를 방문했다. 신한촌은 연해주 항일투쟁의 중심지이자 가장 큰 한인 주거지였다. 시의원들은 연해주 한인회(회장 김경재)를 방문해 1910년대부터 1920년대까지 항일 독립투쟁의 중심지인 연해주 한인회의 역사와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2 일차 | 24일 우수리스크의 한인 이주 140주년 기념관인 고려인문화센터를 방문해 이바짐 알렉산드로비치 센터장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어 민족의 영웅 안중근 의사 기념비와 연해주 독립운동의 대부 최재형 선생 박물관을 방문하고 헤이그 밀사 이상설 유허비에서 보재(溥齋) 이상설 선생의 넋을 위로했다.

3 일차 | 25일에는 크라스키노로 이동해 안중근 의사가 단지동맹을 결성한 독립운동의 현장에서 헌화와 만세삼창, 애국가 제창을 하며 항일운동의 정신을 되새겼다.

4 일차 | 26일, 우리 민족의 영산인 백두산에 오른 시의원들은 건너편 북한 경계를 바라보며 한반도의 통일이 조속히 이뤄지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결연한 의지를 다졌다.

5 일차 | 27일, 북간도 독립운동의 요람 명동촌으로 이동, 3·13운동기념비에 참배하고 민족지사들이 세운 민족교육기관 명동학교와 김약연 기념비, 3·13 반일의사릉 등을 차례로 둘러봤다. 항일시인 윤동주 시인 생가를 찾아 조국의 암울한 역사에 대한 고뇌와 참회를 시로 표현하고자 했던 윤동주 시인의 뜻을 기렸다.

6 일차 | 28일에는 독립운동가의 주요 활동 무대였던 상해 일대의 항일유적지 송경령능원(만국공묘)과 상해사범대 내 중국위안부역사박물관,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 청사, 홍커우공원과 매헌 윤봉길 기념관을 방문했다.

특히 중국위안부역사박물관은 일제강점기 당시 한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에서 일어난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 사실을 입증하는 각종 사료들을 전시하고 있었다. 시의원들은 중국위안부역사박물관 내에 나란히 앉아 있는 한국소녀상과 중국소녀상을 바라보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아픔을 위로했다.

중국과 러시아 일대의 항일 독립운동 주요 유적지 탐방과 독립운동사 연구조사 출장을 떠났던 시의원들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항일 유적지를 방문해 보니 선조들이 겪었을 모진 수난과 비참한 삶에 숙연한 마음이 든다. 독립을 위해 고군분투한 애국선열들의 발자취를 따라 걸으며 애국애족정신을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전했다.



1



2

- 1 신한촌 기념비 참배(9.23)
- 2 우수리스크의 고려인문화센터 방문(9.24)
- 3 안중근 의사 단지동맹비 만세삼창(9.25)



3

성남시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위원장 조정식)는 10월 8일 성남 시청 3층 산성누리에서 '성남시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박문석 의장은 “플뿌리 민주주의의 핵심은 주민의 참여와 협력이다.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함으로써 성남시의 자치역량이 한층 더 성숙해질 것이라 생각한다. 이번 정책토론회에 전문가와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발제자인 평택시 정책보좌관 송창석 박사의 주제 발표를 들은 후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희망제작소 소장을 역임한 윤석인 성남시 시민옴부즈만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조정식 위원장은 “거버넌스를 통해 성남시민의 화합과 성남시의 보다 안정된 미래를 열어가고자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시민참여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성남시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마을지원센터 설립방안 정책토론회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는 10월 15일 오후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성남시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마을지원센터 설립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을 위한 주제는 첫 번째로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의 이해경 센터장이, 두 번째는 '성남시 마을지원센터 설립 필요성 및 방안'을 도봉구 마을지원센터장을 역임한 사단법인 마을 지혜연 이사가 발표했다.

토론회는 남재걸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성남시의회 박경희 시의원과 성남시 마을공동체과 주광호 과장, 성남환경운동연합 김현정 사무국장, 성남마을공동체만들기네트워크 양재연 부위원장이 패널로 참여해 성남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 현황 진단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 성남 마을지원센터 설립 필요성 공유 및 설립방안 마련 등을 토론했다.



상권 활성화를 위한 시의원 간담회



성남시의회(의장 박문석)는 10월 4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분당구 상인연합회 회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문석 의장을 비롯한 분당구 시의원, 분당구 상인연합회 조우식 회장과 회원,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최대봉 본부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상권이 겪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역 특색을 반영한 상권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상인연합회는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인건비, 임대료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며 분당 테마거리 조성, 골목상권 환경개선, 판교 테크노밸리 상권 공동화문제 해결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시의원들은 상인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집행부와 협의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명사가 전하는 건강이야기』

췌장암, 병원 언제 찾고 무엇 조심해야 할까?



김재환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고령화 시대로 기대 여명은 늘고 있지만 여러 환경적 요인들로 인해 암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췌장암 치료법은 많은 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암 중 하나인데요. 췌장암 치료법은 과거에 비해 눈부시게 발전했으며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활발한 연구가 이뤄지는 암종이지만, 췌장암 치료 성적을 높이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조기 진단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으로 건강검진을 떠올릴 수 있겠지만, 2016년 기준 국내 췌장암 환자는 6,655명으로, 10만 명당 약 11명의 발생률을 보이는 비교적 흔치 않은 암입니다. 따라서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검진 방법 역시 매우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무리 성능 좋은 무기를 만들어도 과녁이 너무 작거나 너무 먼 거리에 있으면 맞추기 어려운 것과 비슷한 이치라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언제 췌장암을 의심하고 병원을 찾아야 하는지, 췌장암 예방을 위해 개선할 수 있는 생활습관은 무엇인지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언제 의심하고 병원을 찾아야 할까요?

췌장암의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는 **복통과 등이나 어깨로 뻗치는 듯한 방사통**입니다. 췌장 머리 부위에 암이 있을 경우에는 명치 부위에 주로 통증이 발생하고, 꼬리 부위에 암이 있을 경우에는 좌상복부 부위에 통증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특별히 위나 담석 질환이 없는데도 앞서 언급한 부위에 복통이 지속된다면 병원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등으로의 방사통으로 췌장암을 걱정하시는 분이 많은데, 등 중에서도 너무 높거나 낮은 부위의 통증은 췌장암과는 무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등에서도 명치 부위나 양측 갈비뼈 아래 마주보는 부위의 등 통증이 있다면 췌장암과 연관이 있을 수 있으나, 반대로 젖꼭지 부위 뒤쪽에 해당하는 등이나 골반 위쪽 허리 부위의 통증은 그 가능성이 낮습니다.

췌장암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췌장 머리 부위에 발생한 암 덩어리가 담관을 폐쇄해 **피부가 노랗게 변하는 황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일반인의 경우에는 피부색 변화만으로는 쉽게 알아차리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소변색이 콜라나 홍차처럼 붉거나 검게 변하거나, 눈 흰자위가 노랗게 변색되면서 잘 조절되지 않는 간지러움증이 동반된다면 황달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특히 황달은 췌장암이 아니더라도 중한 질환이 원인인 경우가 많으므로, 황달 증세가 나타난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또한 **식욕 저하를 동반한 체중 감소** 역시 췌장암을 포함한 소화기 암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입니다. 1~2kg 정도의 체중 감소는

크게 의미가 없고, 다이어트나 다른 질환으로 인한 체중 감소가 아닌, 불분명한 식욕 저하에 의해 수 주에서 수개월 이내에 평소 체중의 10% 이상이 감소한다면, 췌장암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잘 조절되던 당뇨가 특별한 이유 없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도 췌장암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담당 주치의와 상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췌장암 예방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흡연은 가장 잘 알려진 췌장암의 위험 인자로, 췌장암 위험을 약 2배 이상 증가시킬 수 있으며, 심지어 금연 후에도 약 10년간은 비흡연자에 비해 췌장암 발병 위험이 무려 75%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금연은 췌장암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생활습관 개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음주는 그 자체가 위험인자는 아니지만, 음주로 인한 만성 췌장염이 발생한 경우 췌장암의 발병 위험이 10~16배 높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금주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 밖에도 당뇨와 비만은 췌장암의 잘 알려진 위험인자이므로, 다른 심혈관계 질환의 예방에 더해 **당뇨와 비만은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췌장암은 분명 무서운 질환입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분이 췌장암을 지나치게 걱정하면서 오히려 삶의 질이 악화되거나, 또 다른 건강 피해를 가져오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 드린 내용을 잘 기억하셨다가 유사한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가능한 빨리 병원을 찾아 의료진과 상의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췌장을 기원합니다.

건강교실

독감 무료예방접종

• 유아~성인 대상

- 만 75세 이상(1944.12. 이전 출생자) : 10.15(화)~
- 만 60세 이상(1959.12. 이전 출생자) : 10.22(화)~
- ※ 장소 : 지역 내 지정의료기관
- 임신부(임신여부 증빙서류 지참) : 10.15(화)~
- 생후 6개월~12세(2007.1.1~2019.8.31) : 9.17(화)~
- ※ 장소 : 전국 지정의료기관

• 성남시 무료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성남인 만 60~64세 시민 (1955~1959년 출생자) : 11.1(금)~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성남인 만 40세 이상 만성질환자(1979.12.31 이전 출생자) : 11.1(금)~
- 의료급여수급권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 11.1(금)~
- ※ 장소 : 3개구 보건소 및 판교보건지소

수정구보건소 031-729-3847, 중원구보건소 031-729-3904
분당구보건소 031-729-3966

헤아림 치매가족교실 참여자 모집

- 일시 : 12.3(화)~ 매주 화요일 오전반(10:00~12:00), 오후반(13:30~15:30) 총 8주 과정, 주 1회 2시간씩 운영
- 장소 : 분당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대상 : 치매진단을 받은 가족이 있는 분당구민 중 선착순 20명 모집
- 내용 : 치매어르신을 돌보는 방법 교육
- 접수기간 : 10.28(월)~11.15(금)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및 전화 접수
분당구보건소 치매예방관리팀 031-729-3638, 4052

대사증후군의 날 운영

- 대상 : 30세 이상 성남시민 누구나
- 일시 : 매주 월요일 오후 18:00~20:00
- 내용 : 혈당, 콜레스테롤, 비만도 등 검사 결과에 대해 건강·운동·영양 상담 등을 통한 생활습관 교정
중원구보건소 건강증진센터 031-729-4925

2019 성남시민 마음건강관리 공개강좌

- 일시 : 11.20(수) 11:00~12:00
- 장소 : 성남시청 3층 한누리실
- 대상 : 성남시민
- 주제 : 가까운 사람들과 잘 지내는 관계 심리
- 강사 : 이남옥 소장(부부가족 상담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 / EBS <달라졌어요> 상담멘토 외 다수 방송출연)
- 접수 : 홈페이지(www.smhc.or.kr) 및 전화 접수 (031-754-3220)

수정스트레스관리실 031-731-5383
중원스트레스관리실 031-734-1008
분당스트레스관리실 031-702-7742
판교스트레스관리실 031-729-4846



장서각 산책

장서각의 세계화, 세계 속의 장서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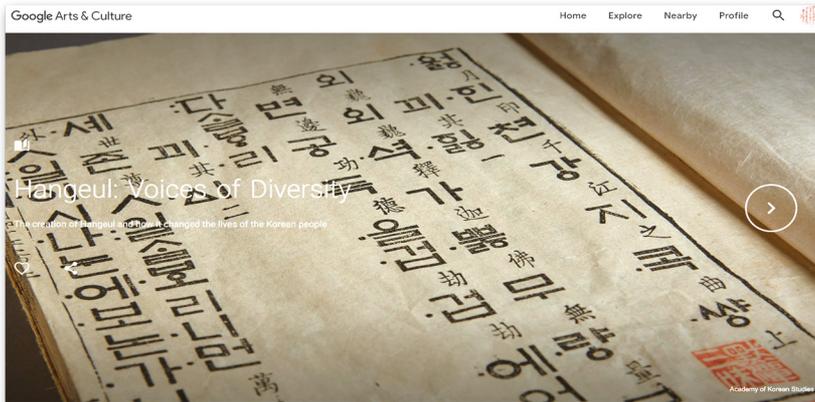
조원희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원

10월 9일 한글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검색 엔진인 구글(<https://www.google.com>)의 첫 페이지는 한글날을 기념하는 특별한 '구글 두들'(Google Doodle, 구글에서 각종 의미가 있는 날을 기념해서 자사의 로고에 붙이는 장식을 지칭함)이 게재됐다.

그리고 한글에 대한 추가 설명을 제공하는 링크는 구글의 온라인 전시회 '한글: 다양성의 목소리'였다. 이 온라인 전시회 영어 버전은 바로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세계화 사업의 하나인 영문 번역사업의 일환으로 출판된, Hangeul: Voices of Diversity 저서의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한 자료다.

장서각의 세계화 사업은 2016년을 시작으로 벌써 4년째 진행되고 있다. 세계화 사업은 장서각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자료의 가치, 연구자들의 역량 등에 비해 국제적으로 장서각의 위상이 작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4년 동안 조선시대 군사 관련 자료를 정리한 『훈국등록』으로 대표되는 장서각 고유 자료에 대한 국제 공동 연구, 매년 여름에 전 세계 젊은 한문 학자들을 대상으로 장서각에 한문 자료를 영어로 지도하는 '장서각 여름 한문 워크숍', 장서각 관련 각종 연구 주제를 국제적인 차원에



구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전시 '한글: 다양성의 목소리(Hangeul: Voices of Diversity)'의 영문판

서 비교 연구하는 세 차례의 국제학술대회, 그리고 장서각의 자료를 화려한 시각 자료와 함께 보여주는 도록 번역사업(위에 소개한 한글에 관한 자료 포함 총 6권)이 진행됐다. 특히 이 번역자료는 현재 영국 Oxford University를 포함해 총 30여 개 해외 기관 도서관에 비치돼 있다.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한글날을 맞아 한글의 창제, 역사, 의의를 가장 효과적으로 영어권 독자에게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장서각에서 출판한 영문서를 바탕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매우 뿌듯한 일이었다.

또한 매년 20여 명의 연구자들을 초청해 장서각 자료를 중심으로 한문을 가르쳐 주는 장서각 여름 한문 워크숍 참가자들은 장서각의 자료를 중심으로

진행된 외국 학위논문, 영어 연구논문, 사료 역주 등의 성과물을 내고 있다. 벌써 4년에 걸쳐 80명 이상의 수강생을 배출한 만큼, 해외에서 장서각의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더 많은 연구 성과가 나오리라 기대하며, 여러 번 요청이 들어와 한문 워크숍 해외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2017년 필자가 해외에 있는 동안 장서각에 '세계화' 담당 자리가 공고됐을 때만 해도 장서각이 어떤 곳인지, 세계적으로 어떤 위상이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리고 국내에 들어온 이후에는 어떤 평가를 받는지 역시 알기 어려웠다.

그러다 지난해 이맘때 미국 예일대(Yale University)에서 동아시아의 '하층민'을 주제로 박사 학위를 준비하는 중국인 후배가 장서각의 자료를 알기 위해서 여름 한문 워크숍에 지원한다고 개인적으로 문의를 했다. 모처럼 온 후배의 연락도 반가웠지만, 따로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장서각 한문 워크숍을 알고 지원할 생각을 했다는 것이 놀라웠다. 세계화를 위해 힘쓴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어가는 것 같아서 혼자서 싱글벙글했던 기억이 있다.

이러한 뿌듯함이 장서각을 넘어 장서각 소재지인 성남시까지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 되기를 희망해 본다.

음악칼럼

첫눈을 기다리며... 드뷔시 '눈이 춤을 추네' & 리스트 '눈보라'

가을 막바지, 겨울로 접어드는 시기다. 뚝 떨어진 기온과 몸을 움츠러들게 만드는 바람에 외부 활동보다는 따뜻한 실내에 머무르고 싶은 계절이다. 이런 추운 계절에도 사람들을 밖으로 내모는 마법이 있다. 바로 첫눈이다.

첫눈은 웬지 모를 기분 좋은 설렘이다. 첫눈 오는 날엔 없던 약속도 만들고 싶어지고 추위에 아랑곳없이 돌아다니고도 싶어진다. 이런 마력을 지닌 눈을 음악으로 표현한 작곡가들이 있다. 리스트와 드뷔시다.



피아노를 치고 있는 드뷔시

드뷔시의 '눈이 춤을 추네'와 리스트의 '눈보라'는 '눈 snow'을 주제로 한 피아노 작품이다. '눈'이라는 소재를 함께 사용하지만, 작품명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두 작품의 눈 묘사 방법은 다르다. 드뷔시의 '눈이 춤을 추네'는 하공에서 춤을 추며 내려오는 눈송이를 바라보는 천진난만한 아이의 시선이 느껴지는 곡이라면, 리스트의 '눈보라'는 점점 거세지는 눈의 위력이 어둡고 무섭게 다가오는 작품이다.

두 작품이 '눈'에 대한 해석이 다른 데는 이유가 있다. 드뷔시의 '눈'은 자신의 사랑하는 딸 슈슈를 위해 만든 작품이고, 리스트의 '눈'은 자신의 메피스토적인 피아노 연주 기교를 보여 주기 위해 만든 작품이기 때문이다.

드뷔시는 딸 슈슈를 위해 <어린이 세계 Children's Corner>라는 작품집을 만들었다. 당시 3살이 채 안된 슈슈는 영국인 보모의 돌봄을 받았는데 이 작품집에 수록된 여섯 작품 모두에 영어 제목이 붙은 이유다. 네 번째 수록곡인 '눈이 춤을 추네'도 'The Snow Is Dancing'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다.

리스트는 <초절기교 연습곡>을 만들고 12번째인 마



베토벤 석상을 바라보며 연주하는 리스트, 당대 예술가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다.

지막 작품으로 '눈보라 Chasse-neige'를 넣는다. 이 작품은 '트릴'(두 음을 빠르게 반복해 연주하는 테크닉) 연마를 위한 연습곡이지만 단순한 연습곡을 뛰어넘어 매서운 바람에 휘날리는 '눈보라'를 인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두 곡을 듣다보니 올겨울 첫눈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진다. 드뷔시와 리스트의 '눈'을 들으며 기다리는 올겨울은 낭만 한 스펀 가미된 겨울이기를 바란다.

※ 유튜브에 '비전성남 음악칼럼 눈'을 입력하면 위 두 작품의 연주 영상을 찾을 수 있다.

취재 조윤수 기자 choyoonsoo@gmail.com



성남시립(은행)식물원 목공체험장 11월 프로그램

프로그램	체험비(원)	대상	프로그램	체험비(원)	대상
3칸 서랍장	3만5천 원	개인 또는 가족 (고등부 이상)	손잡이트레이	1만2천 원	초등부 이상
캠핑 테이블	2만5천 원		다용도 티슈보관함	1만6천 원	
다용도 정리박스	1만5천 원		미니서랍책꽂이	2만4천 원	
월넛 도마	2만9천 원		모니터받침대	1만4천 원	
수납 꽃이	2만 원		원목스피커	12만 원	

※ 프로그램 개설 여부와 세부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교육시간** : 홈페이지 참고, 오전(09:00~12:00), 오후(14:00~17:00) ※ 주중은 오후만 진행(월요일 휴무)
- **참여방법** : 홈페이지 신청

성남시립(은행)식물원 031-729-4314/ 4319, <http://epark.seongnam.go.kr>

성남시립(은행)식물원 연간 프로그램

프로그램	일정	대상	내용
곤충나라 새(鳥)나라의 비밀	월·수·금요일	유치부~초등부	새와 곤충에 대해 직접 관찰
숲속책방의 생태이야기	월요일 오전	유치부	동화 속 생태이야기와 야외활동
숲에서 옹기종기	화·목요일	유치부~중등부	자연 체험 학습
사계절 생태놀이터	화·목요일 오전·오후	유치부~초등부	해설, 놀이, 관찰, 종합체험
숲건강 프로젝트 몸튼튼! 마음튼튼!	월·수·금요일	유치부	자연놀이와 키즈요가, 신체 운동프로그램
바스락 숲놀이터	월·금요일	유치부~초등부	음악체험활동과 숲해설을 접목한 놀이프로그램
전래놀이아~ 놀자	수·금요일	유치부	전래동화 속 인물이 돼 우리 전통 문화를 체험
똑똑똑 공작교실	2·4주 토 오후	가족	가족공작프로그램
가족미션탐험대 동서남북 구석구석	1주 토 오전	가족 및 초등학생 단체	나침반과 지도를 이용해 각종 미션 해결
우드버닝에 빠지다	1·3주 토 오후	초등학생 고학년 이상	목공 소품에 버닝기로 그림 그리기

※ 프로그램 개설 여부와 세부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우선 시 교육 진행

- **교육시간** : 전화문의(사전협조 필요) • **참여방법** : 홈페이지 접수

성남시립(은행)식물원 031-729-4314/ 4319, <http://epark.seongnam.go.kr>

판교환경생태학습원 11월 프로그램

프로그램	교육일정	대상	내용
숲놀이학교	화·수·목·금요일 10:00, 11:10	5세 이상 단체	계절에 따른 놀이와 체험. 우천 시 우의(우산) 준비
환경아 놀자	화요일 11:00~11:50	5~7세 단체	동화와 체험활동을 통한 환경 실천 교육
기후랑 나랑	화요일 11:00~11:50	6~7세 단체	기후변화 이야기를 통한 체험놀이와 만들기(유아 누리과정 연계)
자연관찰학교	화요일 15:30~17:00	8~11세	생태 체험 정기 모니터링 (1회 신청 시 2개월 정기참여)
에코키즈팩토리	수요일 13:00, 15:30	8~11세	천연제품 만들기를 통한 환경 안전 프로그램
판교 생활환경 '더 나은'	금요일 10:30~12:00	성인	환경 실천방법을 봉사로 배우는 성인 환경동아리 활동
에코키즈카페	금요일 15:30~17:00	5~7세	보호자와 함께하는 생태환경 체험 활동
새친구 동고비	토요일 10:00~12:00	7세 이상 가족	가족과 함께하는 조류탐사
신나는 전래놀이	토요일(가족), 일요일(개인) 10:30~12:00	가족-5세 이상 개인-8~10세	직접 만든 놀이도구로 하는 전래놀이
찾아라~ 착한 에너지!	토요일 13:00~14:30	9~12세	전기 생성 과정과 착한 에너지와 착한 발전소를 알아보는 프로그램
하나되는 기후가족	토요일 15:00~16:30	8세 이상 가족	체험활동으로 배우는 기후변화 가족 프로그램
리틀 포레스트	일요일 13:00~14:30	5세 이상 가족	자연 놀이와 체험·관찰 등 가족 힐링 프로그램
가치 찾는 에코공방	일요일 15:30~17:00	5세 이상 가족	가족과 함께 창작물 리폼 및 소품 제작
찾아가는 공익성 시민교육	6~11월 평일 중	6~11세	속닥속닥 소리여행(소리와 소음교육), 물방울의 여행(물 환경교육)
우리씨앗 나눔행사	10.26(토) 10:30, 13:30	5세 이상	씨앗(양배추, 흑보리) 나눔과 곡물 홀데 체험(당일 신청순 접수)

※ 프로그램 세부내용 및 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참여방법** :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무료신청 / 매월 1일(휴일인 경우 전후)부터 다음 달 분 예약 가능 신청 시, 홈페이지에 기재된 주의사항을 꼭 확인바랍니다.

판교환경생태학습원 031-8016-0100, <http://ppark.seongnam.go.kr>

맹산환경생태학습원 MaengSan Eco Center 11월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교육일정	대상	내용
에코 키즈 A	화~금 오전·오후	유아단체 (5~7세)	찾아라 색깔 마법사(단풍을 주제로 오감체험 할 수 있는 생태 프로그램)
에코 키즈 B		초등단체	
맹산 숲속이야기	토·일 오전/오후	유아가족 초등가족	〈환경부 인증 프로그램〉 월별 주제에 따라 진행
엄마의 지구 사용설명서	매주 화요일 오전	성인	〈환경부 인증 프로그램〉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올바른 환경이야기와 다양한 만들기 활동
열두 달 환경교실	매주 금요일 오전	유아단체	12개 환경 관련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활동하는 실천형 프로그램
이야기극장	수요일 오전	유아단체	재미난 이야기를 각색한 환경생태 동극 및 오감 체험놀이 ※신 별주부전(환경오염)
병아리환경교실	평일 11:00	유아단체 (3~4세)	오감 체험 중심의 돌러보기 활동
함께하는 자연	별도협의	장애인	장애인 단체를 위한 생태체험 프로그램
에코틴	별도협의	청소년	환경동아리 및 중고등학생을 위한 환경프로젝트
맹산 공작소 (전시실 프로그램)	주말	가족	플라스틱을 재활용해 움직이는 자동차 만들기
	평일 오전	성인	종이와 자연물을 이용한 드림캐처 만들기
맹산 자연원기 (전시실 프로그램)	주말	가족	반디도서관에서 자연책을 읽고 바깥활동하기

※ 프로그램 개설 여부와 세부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참여방법** : 개인 및 가족 예약 매월 5일 전후 홈페이지에서 신청 /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 및 준비물이 있는 경우 사전공지

맹산환경생태학습원 031-702-1192, <http://mpark.seongnam.go.kr>

바야흐로 청소년 세상

성남시청소년재단

기관	프로그램	일정	장소	대상	내용	접수	문의
사무국	제3회 국제청소년 컨퍼런스 in 성남	10.31(목)~11.3(일)	국립국제교육원 판교청소년수련관 판교밸리	청소년·청소년지도사	• 10.31(목) 개회식 및 전문가 컨퍼런스 세션 1 청소년 워크숍 • 11.1(금) 전문가 컨퍼런스 세션 2 및 지도자 연수 청소년 분과별 토의 등 • 11.2(토)~3(일) 국내외 청소년 판교기업 방문 및 문화 교류	홈페이지 사전접수	031-729-9053
	제9회 성남시 청소년 정책제안대회(본선)	11.9(토) 14:00~18:00	성남시청 한누리	청소년	• 본선 진출 팀 제안 발표, 심사 및 시상 등	홈페이지 참조	031-729-9054
수정 청소년수련관	코딩과 미술의 융합 (스토리보드)	11월 매주(토) 총5회	수련관	초등 1~6학년	• 언플러그드 코딩 보드게임과 VR 및 AR 체험 등	전화 접수	031-729-9234
중원 청소년수련관	우다다스쿨	11.9(토)/11.23(토) 13:00~15:00	중원청소년수련관 내부 활동지	다문화 청소년	• 다문화청소년 대상 국어,수학,과학 프로그램 및 창작 체험활동	상시	031-729-9339
	11월 소곤소곤 이야기 도서관	11.9(토)/11.23(토) 15:30~16:30	중원청소년수련관 작은도서관	초등 4~6학년 (10명 내외)	• 도서관 청소년 멘토단이 동화책 읽어주기	10.29(화)~ 마감시(전화접수)	031-729-9374
서현 청소년수련관	드론교실(초급과정4차)	11.2(토)~12.21(토)	수련관 강의실	초등3~중3	• 드론원리, 조립, 조종기 조작방법, 비행실습 등	신청순	031-729-9431
정자 청소년수련관	상담프로그램	연중	상담실	청소년·학부모	• 대면상담, 놀이 및 미술 치료, 가족상담, 집단상담 등	현장참여	031-729-9560
	메이커 주간행사	11.4(월)~11.9(토) (총6일간)	1층 메이커스페이스	청소년 지역주민	• 메이커 활동 작품 전시 및 체험 부스 운영 • 청소년이 모여 상상력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하는 메이커 창작 활동 대회	현장참여	031-729-9533 031-729-9538
판교 청소년수련관	청소년기획 봉사활동 만원의 마법	11월 중	외부활동지	중1~고3	• 1만원의 씨앗자금을 통해 청소년의 주변 환경, 지역사회 변화를 위한 실천 활동 지원	전화접수	031-729-9638
	상담실 운영	월~금 09:00~20:00 토 09:00~17:00	2층 상담실	8~24세 및 학부모	• 청소년 문제 예방 및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	전화접수	031-729-9659

도서관에서 놀자

■ **중원도서관**

구분	행사명	일시	대상	접수방법
전시	그림으로 만나는 세계절 24절기	11.1(금)~11.24(일)	성남시민	현장참여
	세계어린이도서 및 나야 내 한국어 뽐내기	11.25(월)~11.30(토)	성남시민	현장참여
체험	국기 컬러 테라피	11.4(월)~11.17(일)	성남시민	현장참여
	책보고 딱지치고(다문화 이해교육)	11.25(월)~11.30(토)	어린이가족열람실 이용 어린이 (선착순 100명)	현장참여
	'방문객, 그린북, 지구: 놀라운 하루'	11.27(수) 10:00/13:00/15:30	성남시민	현장참여
	세계건축물 미술놀이 및 다문화 체험한마당 등	11.30(토) 14:00~18:00	성남시민	현장참여
행사	책이랑 아가마중 '책마중 꾸러미 배부'	10.1(화)~11.30(토)	임산부 또는 영유아 (도서대출 30권 이상 대출자)	현장참여
공연	밥아저씨의 매지컬 드로잉	11.23(토) 10:30~	유아~초등 저학년 및 보호자	선착순 입장
	그룹 뮤지스와 함께하는 '클래식 음악과 크로스오버 음악이야기'	11.30(토) 14:00~	성남시민 8세 이상	선착순 입장

* 일정은 도서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서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중원도서관 031-752-3913 <https://www.snlib.go.kr/jw>

성남의 역사를 담은 그림책
『스무 발자국』 원화 전시



성남 원도심의 야경

성남시는 11월 4일(월) 성남시청 2층 공감갤러리에서 성남의 역사를 담은 그림책 『스무 발자국』의 원화를 전시한다. 『스무 발자국』은 성남시 생성의 계기가 된 광주대단지 사건을 그린 그림책이다.

전시는 11월 4일(월) 오후 3시부터 11월 9일(토)까지며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그림, 사진, 영상 등 30여 점이 전시되며 시민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전시를 통해 광주대단지사건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널리 알려 성남의 다양한 세대가 함께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행정지원과 기록정보팀 031-729-4980

- **전시목적** : 성남시 생성의 계기가 된 광주대단지사건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바로 알고 다양한 세대가 함께 참여해 '하나된 성남'의 정체성 확립
- **기간** : 2019.11.4(월) 15:00~11.9(토) (운영시간 09:00~18:00)
- **장소** : 공감갤러리(시청사 2층) • **대상** : 성남시민 누구나 무료
- **작가** : 김달(University PARIS 8, paris, France)
박승예(C.W.POST of Longisland University NY, MA)
- **전시작품** : 그림, 사진, 영상 등 30여 점

명사 초청 강연 11월 성남 행복 아카데미

강사명	일자	장소	주제	주요활동
법률희님	11.6(수) 19:00~21:00 (사전진행 18:20)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법률희님 즉문즉설	〈주요경력〉 • 평화재단 이사장 • 정토회 지도법사 • 정토헌교대학 설립 〈저서〉 • 힘내라 청춘(2018) • 마음아 행복하여라(2018) • 야단법석(2017) 외 다수
태원준 (여행작가)	11.21(목) 10:00~11:30	성남시청 1층 온누리실	여행이 우리에게 안겨주는 것	〈주요경력〉 • 한국경제신문 HK여행작가 아카데미 강사 • KT&G 상상Univ. 배낭여행플래닝 클래스 북서울점, 전북점 강사 〈저서〉 • 엄마, 내친김에 남미까지!!(2016) • 엄마 결국은 해피엔딩이야(2013)

* 상기 일정 및 내용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상** : 성남시민 누구나 • **인원** : 선착순 600여 명
성남시 평생교육과 031-729-3082

이달의 공연·전시

NOVEMBER 11 2019

<p>10/31 제7회 사모합창단 정기연주 일시 : 10.31(목) 19:30 장소 : 티엘아이 아트센터 문의 : 031-779-1500</p> <p>2 파시나토 정기연주회 일시 : 11.2(토) 15:00 장소 : 티엘아이 아트센터 문의 : 031-779-1500</p> <p>9 이은결 <THE ILLUSION> 일시 : 11.9(토) 15:00, 19:30 / 11.10(일) 14:00 장소 : 오페라하우스 가격 : R석 7만7천 원, S석 5만5천 원 문의 : 1544-9857</p> <p>10 은가람 정기연주회 일시 : 11.10(일) 16:00 장소 : 티엘아이 아트센터 문의 : 031-779-1500</p>	<p>15 슈만과 슈베르트의 사랑이야기 일시 : 11.15(금) 19:00 장소 : 티엘아이 아트센터 가격 : 전석 무료 문의 : 031-779-1500</p> <p>16 서영은 콘서트 일시 : 11.16(토) 16:00, 19:30 장소 : 오페라하우스 가격 : VIP석 2만9,900원 R석 1만9,900원 S석 9,900원 문의 : 1522-4248</p> <p>16 서영은 콘서트 2019. 11. 16(토) 성남아트센터</p>	<p>16 피아니스트 김현정 클로리아 앨범발매기념 독주회 일시 : 11.16(토) 17:00 장소 : 티엘아이 아트센터 가격 : R석 3만 원, S석 2만 원 문의 : 031-779-1500</p> <p>17 퀵서독일 방송 교향악단, 마렉 아노프스키 & 김선욱 일시 : 11.17(일) 17:00 장소 : 콘서트홀 가격 : VIP석 18만 원, R석 15만 원 S석 12만 원, A석 8만 원 합창석 5만 원 문의 : 031-783-8000</p> <p>20 2019 앙트레콘서트 II 거미줄에 걸린 꽃잎 - 춤으로 만난 심청 일시 : 11.20(수) 20:00 장소 : 오페라하우스 가격 : 1만 원 문의 : 031-783-8000</p>	<p>23 재능나눔 '나눔모락, 기쁨모락' 에릭 다보스트 피아노 독주회 일시 : 11.23(토) 14:00 장소 : 콘서트홀 문의 : 031-783-8045, 8051</p> <p>28 코리안 솔로이스츠의 <올 댓 챔버-ALL THAT CHAMBER> 일시 : 11.28(목) 20:00 장소 : 티엘아이 아트센터 가격 : 3만 원 문의 : 031-779-1500</p>	<table border="1"> <tr> <td>SUN</td><td>MON</td><td>TUE</td><td>WED</td><td>THU</td><td>FRI</td><td>SAT</td> </tr> <tr> <td></td><td></td><td></td><td></td><td></td><td></td><td>1 2</td> </tr> <tr> <td>3</td><td>4</td><td>5</td><td>6</td><td>7</td><td>8</td><td>9</td> </tr> <tr> <td>10</td><td>11</td><td>12</td><td>13</td><td>14</td><td>15</td><td>16</td> </tr> <tr> <td>17</td><td>18</td><td>19</td><td>20</td><td>21</td><td>22</td><td>23</td> </tr> <tr> <td>24</td><td>25</td><td>26</td><td>27</td><td>28</td><td>29</td><td>30</td> </tr> </table> <p>~ 전 무 성남의 얼굴전<집> 일시 : 9.20(금)~12.22(일) 장소 : 성남큐브미술관 기획전시실 문의 : 031-783-8142~9 (성남문화재단 전시기획부)</p> <p>~ 전 무 소장품주제기획전 <ILLUSION: ELUSION> 일시 : 7.19(금)~12.22(일) 장소 : 성남큐브미술관 상설전시실 문의 : 031-783-8142~9 (성남문화재단 전시기획부)</p>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essay

내 이야기를 들어준 곳

윤미라 | 아탑동

2년 전 여러 가지 일로 많이 힘들었던 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렇게 용기를 내서 내 마음을, 내 이야기를 들어줄 곳을 찾기 시작했을 때 나의 이야기를 들어준 성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 스트레스 관리실.

스트레스를 측정하고 상담해주는 분과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누고 나니 사실 큰 기대 없이 찾은 곳이었는데 정확한 내 상태를 알게 됐고 더 나아가 나아질 방법을 구체적으로 찾아볼 마음이 생겼다. 그래서 명상요가, 웃음치료, 원예치료 등 추천해 주신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 원예치료를 시작하게 됐다. 원예치료는 꽃과 화분을 돌보는 프로그램이다. 두 달 반, 10회에 걸친 원예치료 과정 속에서 나도 모르게 서서히 심리적인 치유와 힐링이 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사람은 몸이 아프면 그 원인을 찾기 위해 병원을 가고 처방을 받고 약을 먹는다. 그렇다면 마음도 마찬가지로 여야 하지 않을까?

마음이 아파도 적극적으로 그 원인을 찾아야 하고, 도움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혼자만의 힘으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에 용기도 필요하고 정보도 있어야 하고 도움도 있어야 한다.

그럴 때 도움을 주고 내 이야기를 들어준 곳, 성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 스트레스 관리실.

‘아프니까 청춘이다?’ 아니다.

‘아프니까 사람이다!’

그럴 때 조금만 용기를 내서, 조금만 기운을 내서 손을 내밀어 보면 좋겠다.

그 손을 따뜻하게 잡아줄 곳이 우리 가까이 분명 있을 테니까.

성남의 클린 천사

이동현 | 하대원동

“쓰레기 몰~러 나간다.”

수천 억 재벌 회장님도, 길거리 노숙자도 모두 잠들어 신이 내린 시간 중 가장 공평한 새벽 3시 50분. 그러나 이 시간에 일터로 나서는 환경미화원들이 있다.

길가에 하얗게 눈더미처럼 쌓여 있는 각종 홍보용 전단지가 눈에 확 들어온다. 한숨이 나왔지만 물러설 수 없다. 마음을 다잡고 빗자루로 전단지와 담배꽂초가 뒤엉켜 있는 쓰레기를 치운다.

옆에서 지켜보다가 순간 화가 치밀어 “도대체 자기들이 치우는 것도 아닌데 전단지를 마구 뿌려도 되는 거야? 벌금을 때리든지 해야지 원!”이라며 한마디 내뱉었지만 아저씨는 묵묵히 일만 한다. 늘 겪는 일이기 때문이다.

1시간 정도 지났을 무렵 아저씨는 허리와 팔 다

리가 아파 오고 몸은 천근처럼 무거워졌다며 잠깐 정도의 휴식을 마친 후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 다시 거리로 나섰다.

“깨끗이 치우지 않으면 바로 민원이 들어와요. 우리는 휴식하면서 담배도 길거리에서 함부로 못 피워요. 국민의 세금을 받고 일하는 환경미화원이 놓고 있다고 민원을 넣거든...”

어느덧 동이 터오고 마무리 작업에 총실해진다. 거리는 반짝반짝 깨끗해졌다.

그동안 생각 없이 버린 쓰레기와 오물을 기꺼이 치워 주는 환경미화원들의 손길이 있기에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상쾌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날 수 있었던 것 아닌가. 오늘 다시금 그 클린천사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해 본다.

photo



김복 |
수정구 수진동

무지개
오랜 꿈이 이루어지듯 고운 무지개가 났습니다.
우리 모두 무지개를 닮았으면 합니다.



이예진 |
수정구 단대동

양지공원
햇살이 따스한 어느 날,
양지바른 공원에서 도심 속 힐링 타임 중



▶ 임산부를 위한 숲태교 교실

- 일시 : 2019.10.26(토) 10:00~12:00
- 장소 : 맹산환경생태학습원 • 대상 : 20주 이상 임산부
- 신청방법 : 홈페이지(http://mpark.seongnam.go.kr) 또는 전화 접수
- 내용 : 태몽목걸이도 만들고 숲에서 힐링해 보는 프로그램 맹산환경생태학습원 031-702-1192

▶ 성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우리동네 건강지킴이 사업 안내

- 일시 : 11.1(금)~11.30(토) ※ 지정별로 일정 상이
- 장소 : 성남시 아이사랑놀이터 (시청2호, 양지, 분당판교, 분당구청, 중원, 수내, 중앙동)
- 대상 : 성남시 영유아 가정
- 신청방법 : 센터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 (www.sneducare.or.kr/echild)
- 내용 : 을지대학교 교수진과 함께하는 영유아 신체 건강검사 실시(신체건강, 심리, 부모상담 및 교육 등)

아이사랑놀이터 장난감도서관 회원 모집

- 대상 : 만 48월 이하 자녀를 둔 성남시민 및 성남시 재직자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우선순위 추천제)
- 내용

신청기간	추첨일	등록기간	지점명	추첨인원
10.30(수)~11.12(화)	11.14(목)	11.19(화)~11.23(토)	수정점	100명
			시청점	600명

UCC 공모전

- 공모일시 : 10.21(월)~11.8(금)
- 공모대상 : 성남시민, 성남시 어린이집
- 공모주제 : 아이권리존중 캠페인 실천사례 UCC 공모
- 응모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접수 (sneducare@hanmail.net)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www.sneducare.or.kr/echild)
- 발표 및 시상내역 : 11.19(화) / 5만~30만 원 상당의 상품 지급

성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 031-721-1640

▶ 운수사업자를 위한 정책자금 특별 대출

- 대상 : 용달, 개별화물, 택배, 개인택시 등을 하는 운수사업자
- 지원금액 : 최대 2천만 원
- 금리 : 연 3.5%(4개월 성실상환 시) 미소금융 경기성남법인 031-721-2103~6

▶ 2019년 12월 시민 정보화 무료교육 일정

기관명	구분	자격	교육기간	교육시간	접수일/접수처
수정구청	컴퓨터 기초(윈도우10 & 인터넷)	성남시민	12.2(월)~20(금)	월~금 10:00~12:00	11.15(금) 09:00~마감 시 인터넷 선착순 접수 031-729-5073
	스마트폰 기초 및 활용			월~금 14:00~16:00	
중원구청	한글 2014	성남시민	12.2(월)~24(화)	월~금 10:00~12:00	11.18(월) 09:00~마감 시 인터넷 선착순 접수 031-729-6074
	이미지편집			월~금 14:00~16:00	
중원도서관	일상의 반전! 구글클래스	성남시민(성인)	12.2(월)~19(목)	월~목 10:00~12:00	11.19(화) 10:00~11.21(목) 18:00 인터넷 선착순 접수 031-752-3913
	스크래치로 한번에 끝내는 코딩자격증	성남시민(직장인)	12.7(토)~28(토)	토요일 10:00~12:30	
수정도서관	블로그 고수되기	성남시민(성인)	12.3(화)~20(금)	화-수-목-금 10:00~12:00	11.19(화) 10:00~11.21(목) 18:00 인터넷 선착순 접수 031-743-9600
	New 버전UP! 파워포인트2016 활용	성남시민(직장인)	12.7(토)~28(토)	토요일 10:00~12:00	
(사)성남시장애인 정보화협회	인터넷활용, 블로그, 컴퓨터기초, ITQ, 포토샵(동영상 편집)	장애인 및 성남시민	3개월	전화문의	수시모집 010-5184-6884 031-732-6884

※ 중앙도서관 등의 무료교육 일정은 중앙도서관 729-4633, 분당구청 729-707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남FC 11월 파이널 경기일정

라운드	날짜	시간	지역
36R	11.2(토)	14:00	수원(원정)
37R	11.24(일)	14:00	경남(홈)
38R	11.30(토)	15:00	제주(홈)

성남시민프로축구단 031-729-4133

▶ 성남여성인력개발센터

Mini 취업박람회 - 내 일(Job)을 만나는 오늘

- 일시 : 11.6(수) 14:00~16:00
- 대상 : 여성구인기업, 구직여성
- 접수방법 : 전화, 방문 접수[11.4(월)까지]

여성예비창업자교육 - 창업희망스쿨 'Start-up, Grow-up'

- 일시 : 11.7(목) 10:00~13:00
- 대상 : 여성예비창업자, 여성구직자
- 접수방법 : 전화, 방문 접수[11.5(화)까지]

경력단절여성 취업대비교육 -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자신감 회복하기"

- 일시 : 11.11(월)~11.15(금) / 11.25(월)~11.29(금) 09:30~13:30
- 대상 : 경력단절여성, 미취업 구직여성(고용보험가입자, 국비지원교육 참여자 제외)
- 접수방법 : 전화, 홈페이지 접수(www.snw.or.kr) 성남여성인력개발센터 031-718-6696

▶ '조선왕실의 비석과 지식 탐본' 특별전 개최

- 일시 : 10.8(화)~12.21(토) 월~토 09:30~17:30 (일요일은 휴관)
- 장소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내용 : 300년간(광해군~대한제국) 제작된 조선왕실 탐본 556점 중 가장 아름답고 중요한 유물을 일반에 최초 공개 한국학중앙연구원 031-730-8820

▶ 제12회 청소년 만화그리기대회 개최

- 일시 : 11.16(토) 13:00~19:00 • 주제 : 당일 발표
- 장소 : 성남시청 3층 한누리실
- 대상 : 성남시 관내 초등학교 6학년 이상,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생, 학교 밖 청소년
- 접수방법 : 전화(031-731-9808), 팩스(031-731-9805) 및 메일(snyouth@hanmail.net) 접수 ※ 모든 참가자에게는 기념품 증정 (사)새날복지회 성남시중원지역청소년센터 031-731-9808



▶ 현대백화점 협력 성남시 중소기업 우수제품 판매전

- 기간 : 11.1(금)~11.3(일)
 - 장소 : 현대백화점 판교점 B1층
- 성남산업진흥원 031-782-3000

▶ 성남시민을 위한 무료 노무·양육 상담(개인상담)

구분	노무상담실	양육상담실
일정	매주 화요일 18:00~21:00	매주 목요일 16:00~21:00
대상	성남시 거주 및 관내 재직자	성남시 거주 및 관내 재직 부모
내용	육아휴직, 부당해고, 임금체불, 퇴직 등 근로상담	자녀문제행동, 양육고충, 발달검사, 다중지능검사 등
장소	성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신흥) 내 상담실	
신청	월요일~금요일 09:00~18:00 (전화접수 /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성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 일생활균형지원팀 031-754-9327



성남이 궁금할 때?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비전성남**

플레이스토어 / 앱스토어 "비전성남" 검색 후 설치

※ 신규 우편발송 신청 서비스는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지면 소식지 필요 시 가까운 사·구 청사,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수련관 등 다중장소에 비치되어 있는 소식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일상권



성남시의료원의 빠른 개원 바라는 시범길상권 간절함으로 희망을 노래하다!

‘성남시의료원’이 2020년 3월 정식 개원을 목표로 12월 진료를 개시한다. 의료원 개원을 앞두고 주변 상권이 분주한 움직임을 시작했다. 2009년 10월 시청사 이전 후 이곳에 의료원이 들어선다는 소식으로 시작해 10년이 흘렀다. 시민들은 성남시의료원 개원을 손꼽아 기다린다. 특히 의료원 주변 상권, 시범길 상인들은 의료원 개원이 상권 활성화로 이어지길, 이제 그만 적막의 그늘이 걷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희망을 노래한다. 시범길에서 상인들의 간절함을 들어봤다.

취재 윤현자 기자 yoonh1107@naver.com, 취재 김미진 기자 qeen03@hanmail.net



이재숙 상인회장
파주 - 닭오리 전문점

시청사 이전 후 의료원이 들어선다는 소식으로 시작해 오늘날 기다린 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시청 이전 후 고객 잃은 상인들의 일과는 근심 걱정이었습니다. 유동인구 없는 거리에 적막만이 감도니 상권(商圈)은 비어갈 수밖에요. 지금은 완공된 의료원 건물만 봐도 반갑고 미소가 절로 번집니다. 진료 개시, 정식 개원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길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몸에 좋은 요리 맛있게 만들어서 정성껏 대접하겠습니다.

시청사 이전과 원도심 재개발 사업이 맞물려 시작되다 보니 우리 상인들에게 큰 타격이었습니다. 단골손님 위주로 근근이 유지하며 견뎌왔어요. 의료원 주변 상권 상인들은 의료원이 정상적으로 개원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염원이 담긴 성남시의료원, 좋은 의료진 유치해 건강한 성남, 건강한 시민, 건강한 상권으로 거듭나길 바라봅니다.



이병남 부회장
주꾸미 주사장



김경애
지진이 포차

의료원이 빨리 개원해서 시범길 상권이 예전처럼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내 가족이 먹을 음식이란 생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정 듬뿍 담아 맞이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성남시의료원! 반갑습니다, 고객 여러분!



박은성 은성코다리

성남시의료원 개원에 기대가 큼니다. 개원을 앞둔 의료원을 바라보며 준비된 자세로 기다리고 있어요. 환자들에게 건강회복 우선, 가족들이나 방문객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건강한 음식 정성껏 만들어 대접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노현자
선착장 - 동태요리 전문점

“의료원 언제 개원해요?” 식사하러 오는 분들과 나누는 인사가 돼버렸습니다. 시민들도 많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빨리 개원이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시청 이전과 함께 유동인구 사라진 거리를 지켜보며 지나왔던 시간이 이제는 버겁습니다. 조속한 정상 개원으로 우리 상인들에게 힘을 보태 주세요.



허은주 도리원 한정식

상인회원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거리청소를 하며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시청 이전으로 힘들었지만 이 길 위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예전처럼 활성화될 걸 생각하니 벌써부터 기분이 좋아집니다. 의료원 주변 소상공인들 모두 성남시의료원과 함께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번창하기 바랍니다.



이지영
몽키커피

상권 내에 카페가 없고, 의료원이 개원하면 이곳을 찾는 손님들이 담소 나누며 쉴 만한 곳이 필요할 것 같아서 약 1년 전 오픈하게 됐어요. 현재는 유동인구가 없어 힘들지만 활기 넘치는 거리가 될 거라 믿어요. 시범길 상권 상인들, 파이팅!